



2022.10.

국회에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지출 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총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 상 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직무대리
이 규 민 경제분석관
황 종 료 경제분석관

작성 |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 종 료 경제분석관
박 선 우 경제분석관
이 진 희 경제분석관

지원 | 정 은 희 행정실무원
지 윤 정 자료분석지원요원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GDP성장을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202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9. 2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던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긴축기조 강화, 중국과 유로지역의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올해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의 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망에 더하여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변화, 소득분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전망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제 I 권 「지출 부문」은 GDP,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항목과 소비자물가를, 제 II 권 「성장 및 금융 부문」은 잠재성장률, 총요소생산성, 금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 III 권 「생산 부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을, 제 IV 권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은 국민총소득과 피용자보수, 영업 잉여 등의 소득변수와 인구·고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지출·생산·분배, 그리고 성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가 국회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3년 및 중기 지출 부문별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국내총생산(GDP)	4.1	2.5	2.1	2.3	2.3	2.1
민간소비	3.7	3.7	2.4	2.2	2.0	2.0
정부소비	5.6	5.3	4.0	4.0	3.9	3.8
건설투자	-1.6	-2.9	0.4	3.6	3.2	2.9
설비투자	9.0	-4.9	1.2	4.5	4.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3	4.4	4.7	4.5	4.3
총수출	10.8	4.6	4.1	5.2	5.9	5.9
총수입	10.1	4.2	6.1	7.5	7.8	7.8
경상수지(억달러)	883	350	320	280	250	220
상품수출(통관)	25.7	9.9	0.5	5.9	6.9	6.8
상품수입(통관)	31.5	18.4	1.1	6.6	7.7	6.7
GDP디플레이터	2.5	2.2	2.5	2.0	1.8	1.8
소비자물가	2.5	5.2	3.3	2.7	2.4	2.1
명목 국내총생산(GDP)	6.7	4.7	4.6	4.3	4.1	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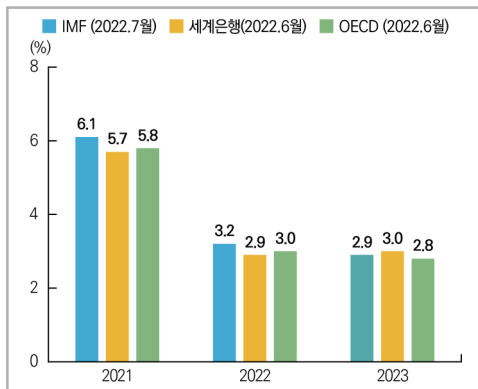
요 약

I.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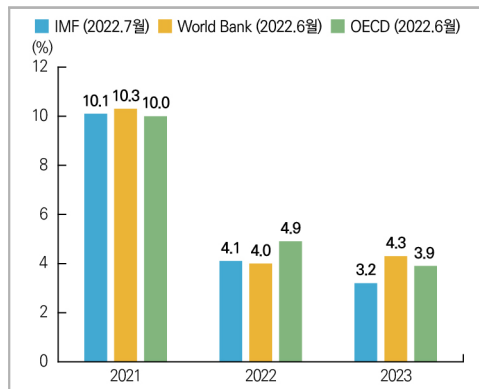
-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
 -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일제히 정책금리 인상
 -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미 달러화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교역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은 2.9%, 세계교역량은 3.8% 증가 예상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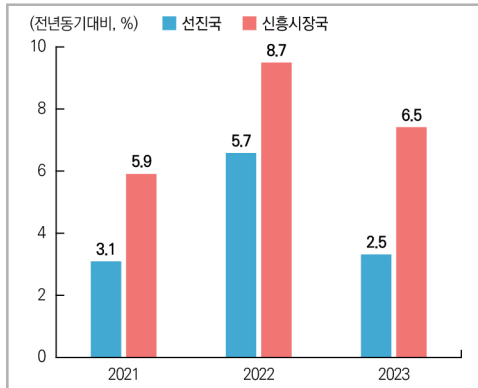
[주요 국제기구의 교역량 전망]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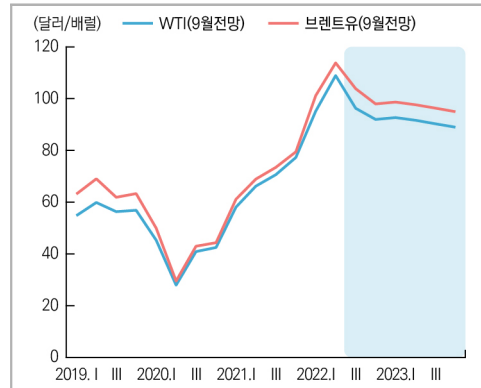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2.5%, 신흥시장국 6.5%로 전제
- 국제유가는 배럴당 92달러, 곡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전년대비 8.1% 하락 예상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 WEO(2022.7월)

[국제유가 전망]



자료: EIA

□ 전망의 리스크 요인

- (상방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해제 및 일상회복 진전,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정책 기조 중립전환 등
- (하방요인)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신흥국 물가불안 심화 위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공급차질 현상 등

2. 국내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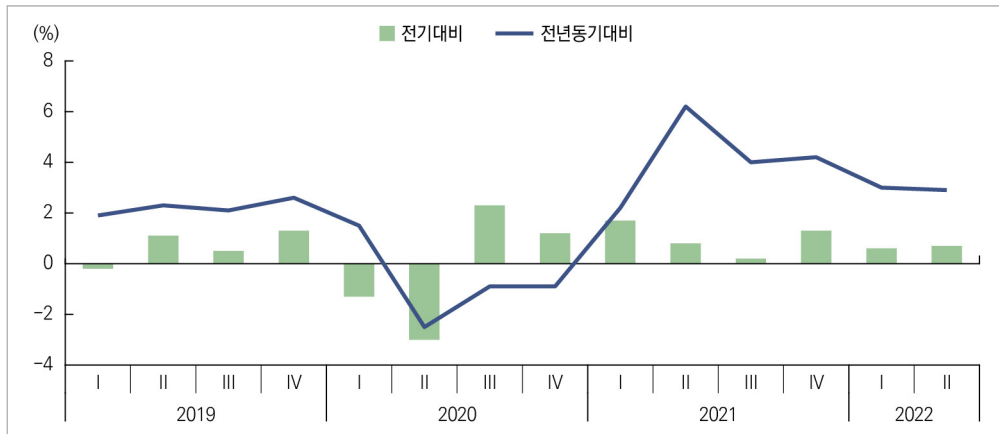
□ 2022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

-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
-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

□ 내수는 경기하강 신호가 우세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크게 약화

- 내수지표는 상승/하강 신호가 혼재한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 관련 지표의 회복세가 약화
-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수입은 높은 증가세 지속
 - 무역수지는 2022년 들어 큰 폭 적자, 상품수지도 흑자 폭 축소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를 중심으로 소폭 흑자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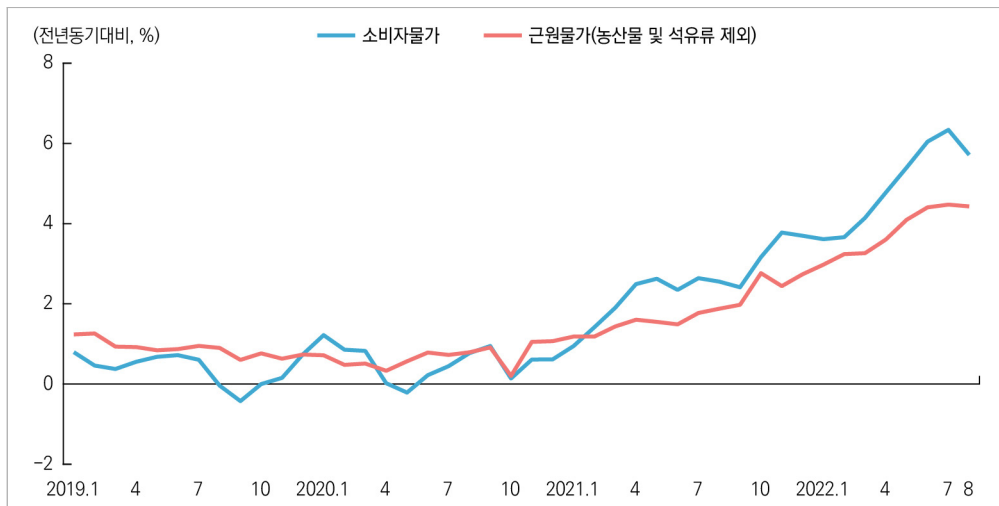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고용은 이례적인 호조를 유지하고 물가는 높은 오름세 지속

- 고용은 8월까지 전년대비 80만명 이상 이례적인 취업자 수 증가폭 시현
- 물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상승 등으로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연초 각각 3.6%, 3.0%에서 8월 현재 각각 5.7%, 4.4%로 오름세 확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II. 지출 부문별 전망

1. 경제성장률

□ 2023년 국내 경제는 2.1% 성장 예상

- 우리 경제의 실질GDP는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 각각 2.5%와 2.1%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22년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7% 증가할 전망이나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4% 증가
- 정부소비는 2022년에 5.3% 증가하겠으나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2023년에는 증가율이 4.0%로 하락
- 건설투자는 2022년 건설자재 수급 등 문제로 -2.9%의 부진을 보이겠으나 2023년에는 3기 신도시 착공 등에 힘입어 0.4%로 회복
-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2022년 -4.9%의 부진이 예상되나, 2023년에는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1.2% 증가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성장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수요 지속, 신규 콘텐츠 투자 확대 등으로 2022년과 2023년 각각 4.3%, 4.4% 성장
- 총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증가율이 4.6%까지 낮아지겠으며 2023년에도 4.1%에 증가에 머물 전망
 - 총수입은 2022년 4.2%,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회복이 기대되는 2023년에는 6.1% 증가할 예상
-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2년 2.0%p에서 2023년 2.5%p까지 높아지겠으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2년 +0.5%p에서 2023년 -0.4%p로 상당폭 하락

□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4.6%로 전망

- 실질GDP 성장률 하락('22년 2.5%→'23년 2.1%)하겠으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전년대비 상승('22년 2.2%→'23년 2.5%)하면서 명목GDP 성장률은 2022년 4.7%(전망)과 비슷한 수준이 될 예상

[명목GDP 성장률 전망]

	2020	2021	2022(전망)	2023(전망)
명목국내총생산	0.8	6.7	4.7	4.6
국내총생산	-0.7	4.1	2.5	2.1
GDP디플레이터	1.5	2.5	2.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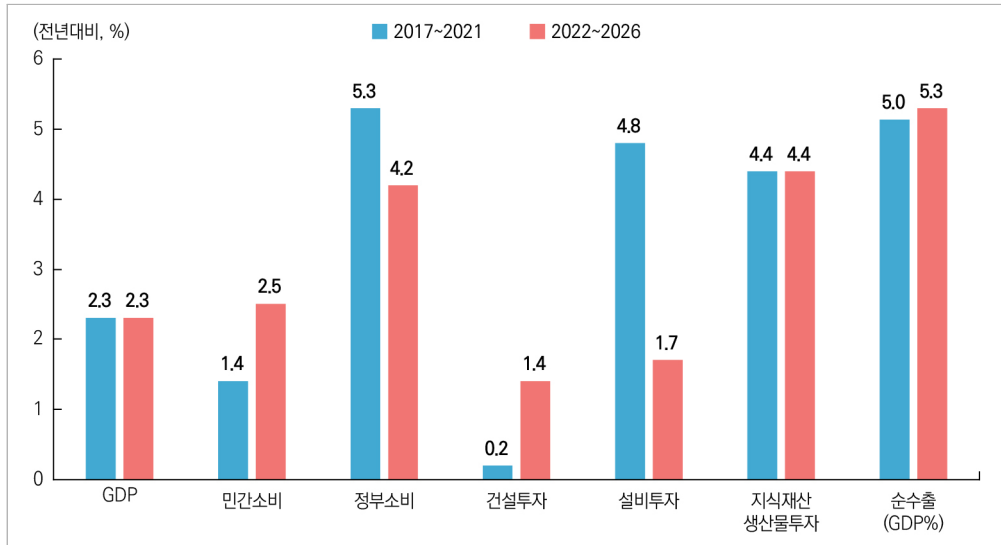
주: 1) 2022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음영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2~2026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3% 성장 예상

- 이전 5년(2017~2021년)과 동일한 성장세 예상
- 내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겠으나 순수출 기여도는 2023년 이후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
 - 성장기여도(연평균, %p): 내수 2.3 → 2.6, 순수출 0.2 → -0.3
- 명목GDP는 연평균 4.3% 성장 예상

[실질GDP 지출부문별 중기 전망(5년단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민간소비

□ 2023년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가계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년(3.7%전망)보다 1.2%p 낮은 2.4% 증가할 전망
 - 높은 금리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부채조정 압력이 커져 소비여력을 제한할 가능성
 - 임금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될 예상
- 2022~2026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5% 증가할 전망
 - 2023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이전의 소비행태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중기적으로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 하락, 인구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악화될 전망

3. 정부소비

□ 2023년 정부소비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 2023년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4.0% 늘어 2022년(5.3%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1.3%p 둔화될 전망
 - 명목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코로나19 이전 증가 추세 회복, 의무지출 비중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할 전망
 -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2022년(4.2% 전망)에 이어 3.4%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실질정부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22~2026년 중 정부소비는 연평균 4.2% 증가하여 이전 5년(5.3%)에 비해 증가세가 연평균 1.1%p 둔화
 - 명목정부소비 증가율은 2022~2026년 중 연평균 7.4%로 이전 5년(연평균 7.2%) 소폭 확대
 - 정부소비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은 동기간 연평균 3.1%로 이전 5년(연평균 1.9%)에 비해 연평균 1.2%p 상승하며 실질정부소비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 건설투자

□ 2023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

- 2023년 건설투자는 전년(-2.9% 전망)보다 3.3%p 높은 0.4% 증가할 전망
 - 건설자재 수급이 완화되고 3기 신도시 착공 등으로 소폭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높은 금리수준과 주택 시장 둔화는 건설투자의 회복을 제약
- 2022~2026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
 - 중기적으로 건설투자는 2018년 이후 지속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과거 5년보다 1%p 이상 높은 증가가 기대됨
 -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과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이 회복을 이끌 예상
 - 토목건설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SOC 예산 비중 감소 등으로 중기적으로 증가가 정체될 전망

5. 설비투자

□ 2023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2023년 설비투자는 원/달러 환율 안정,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전망
 - 2023년 중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ESG 경영환경도 활성화되면서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설비투자가 늘어날 전망
 - 반면 세계 반도체시장 업황 둔화,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계획 등은 2023년 설비투자의 하방요인

- 2022~2026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며 지난 5년(2017~2021 연평균 4.8%)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생산시설 투자 수요는 중기 설비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비대면 IT서비스 수요 증가, 기업의 신규 콘텐츠 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4% 증가 전망
 - 2023년 중 주요 미디어 콘텐츠 공급 서비스(OTT, over-the-top)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수요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 전망
 -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은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2026년 기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4.4% 증가하며 지난 5년(2017~2021 연평균 4.4%)과 같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ICT산업 성장률 증가 등은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7. 대외거래

□ 2023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율이 크게 둔화

- 2023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
- 세계교역량이 둔화(2022년 4.1% → 2023년 3.8%)되면서 한국 수출 증가세도 약화될 전망
- 중국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할 예상

□ 2023년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2023년 경상수지는 전년(350억 달러)보다 축소된 320억 달러 전망
-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흑자폭이 감소하고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2022년 2.1% → 2023년 1.7%)
- 2022~2026년 기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1%, 총수입은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
 - 경상수지는 동 기간중 흑자를 유지하겠으나 그 규모는 284억달러로 지난 5년(753억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

8. 소비자물가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소비 회복세 둔화, 국제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으로 전년대비 3.3% 상승할 전망
 - 원/달러 환율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요인들도 2023년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2~2026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상승하며 지난 5년(2017~2021 연평균 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 물가상승 기대 확산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대 등이 중기 소비자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차 례

[제 I 부 대내외 경제여건]

제1장 세계 경제여건 / 3

제1절 최근 세계경제 동향	3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6
제3절 국제유가	8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11

제2장 국내 경제여건 / 12

제1절 경제성장률 추이	12
제2절 내수와 수출입 여건	17
제3절 고용과 물가 여건	22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24

[제 II 부 지출 부문별 중기 전망]

제1장 경제성장률 / 29

제1절 2023년 전망	29
제2절 중기 전망	34
제3절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35

제2장 민간소비 / 37

제1절 2023년 전망	37
제2절 중기 전망	44

제3장 정부소비 / 47

제1절 2023년 전망	47
제2절 중기 전망	55

제4장 건설투자 / 60

제1절 2023년 전망	60
제2절 중기 전망	66

제5장 설비투자 / 70

제1절 2023년 전망	70
제2절 중기 전망	74

제6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77

제1절 2023년 전망	77
제2절 중기 전망	81

제7장 대외거래 / 84

제1절 2023년 전망	84
제2절 중기 전망	87

제8장 소비자물가 / 90

제1절 2023년 전망	90
제2절 중기 전망	94

참고문헌 / 97

BOX 차례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10
[BOX 2] 지역별·품목별 수출	19
[BOX 3] 교역조건 변화와 GDP디플레이터 간 관계	32
[BOX 4] 순국외소비 동향과 민간소비	42

표 차례

[제Ⅱ부]

[표 II-1] 2022~2026년 국내 경제전망	31
[표 II-2] 명목GDP 성장률 전망	31
[표 II-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3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35
[표 II-4]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 주요 항목(2015년 기준)	48
[표 II-5]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과 국민계정 정부소비의 주요 항목별 추이 ...	50
[표 II-6] 정부의 2023년 재정지출 계획	54
[표 II-7] 중기 재정지출 계획	56
[표 II-8] 중기 정부소비 전망	59
[표 II-9] 2022년 상반기 건설투자 주요 지표	61
[표 II-10] 1~7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62
[표 II-11] 신도시 개발 계획	64
[표 II-12]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인허가 기준)	67
[표 II-13]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 SOC 예산	68
[표 II-14] 설비투자 증감률	70
[표 II-15] 설비투자전망 BSI	71
[표 II-16] 기계류수입액 추이	72
[표 II-17]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시설투자 계획	73
[표 II-18]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추이	75
[표 II-1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77
[표 II-20] 산업별 생산지수	78
[표 II-21] R&D투자 관련 세제지원 정책	79
[표 II-22] 국내 주요 OTT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	80
[표 II-23] 세계 및 국내 패키지SW 시장 규모 전망	82
[표 II-24]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84
[표 II-25] 소비자물가상승률	90

[표 II-26] 소비자물가상승률 품목별 기여도 추이	91
[표 II-27] 수입물가상승률 추이	92
[표 II-28] 국제원자재가격 전망	93
[표 II-29] 온라인 쇼핑액 비중 추이	95

그림 차례

[제 I 부]

[그림 I -1]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3
[그림 I -2] 주요국 성장률 추이	3
[그림 I -3]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4
[그림 I -4] 제조업·서비스업 PMI 추이	4
[그림 I -5]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5
[그림 I -6]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5
[그림 I -7] 신흥국의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5
[그림 I -8]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	5
[그림 I -9]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6
[그림 I -10] 주요 국제기구의 교역량 전망	6
[그림 I -11]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 추이	7
[그림 I -12]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7
[그림 I -13] 국제유가 추이	8
[그림 I -14]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8
[그림 I -15] 국제유가 전망	9
[그림 I -16] 전세계 원유수급추이 및 전망	9
[그림 I -17] OPEC 생산량과 생산능력 추이	9
[그림 I -18] WTI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추이	9
[그림 I -19]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2
[그림 I -20]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13
[그림 I -21]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13
[그림 I -22] 명목GDP 성장률 추이	14
[그림 I -23]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15
[그림 I -24]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15
[그림 I -25]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15
[그림 I -26]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15

[그림 I-27]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16
[그림 I-28] 제조업 재고순환선	16
[그림 I-29] 소비재판매액과 민간소비	17
[그림 I-30] 도소매생산과 민간소비	17
[그림 I-31]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18
[그림 I-32] 건설기성액과 건설투자	18
[그림 I-33]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18
[그림 I-34]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18
[그림 I-35]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추이	20
[그림 I-36] 가공·중개무역 규모 추정치1)	20
[그림 I-37] 서비스수지 추이	21
[그림 I-38] 컨테이너 운임 추이	21
[그림 I-39] 출입국자 수 추이	21
[그림 I-40] 취업자 수 증감	22
[그림 I-41]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22
[그림 I-42]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23
[그림 I-43]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23
[그림 I-44]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23

[제II부]

[그림 II-1]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30
[그림 II-2]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33
[그림 II-3]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33
[그림 II-4] 실질GDP 지출부문별 증기 전망(5년단위 평균)	34
[그림 II-5]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36
[그림 II-6] 소비지표	38
[그림 II-7] 취업자 수	38
[그림 II-8] 재화 및 서비스 소비	38
[그림 II-9]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38
[그림 II-10] 거주자국외소비	39

[그림 II-11] 거주자의 해외카드 사용실적	39
[그림 II-12] 임금상승률	40
[그림 II-13] 소비자동향지수	40
[그림 II-14] 변동금리 비중 및 가계대출 금리	41
[그림 II-15] 소비자심리지수	41
[그림 II-16] 중기 민간소비 전망	44
[그림 II-17] 민간소비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45
[그림 II-18] 총인구	45
[그림 II-19]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45
[그림 II-20] 중기 민간소비 예측치	46
[그림 II-21] 통합재정의 지출과 국민계정 일반정부의 지출	49
[그림 II-22] 명목정부소비와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 추이	51
[그림 II-23] 2020~2022년도 추경안의 세출증액 규모	51
[그림 II-24] 정부소비	52
[그림 II-25]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추이	53
[그림 II-26] 중기 정부소비 전망	55
[그림 II-27] 중기 명목정부소비 전망치와 신뢰구간	57
[그림 II-28] 정부소비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58
[그림 II-29] 중기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전망치와 신뢰구간	59
[그림 II-30] 건설지표	61
[그림 II-31] 공종별 건설투자	61
[그림 II-32] 건물건설 투자	62
[그림 II-33] 주요 건설자재 가격	62
[그림 II-34] 건축물 착공현황	63
[그림 II-35] 제조업 가동률	63
[그림 II-36] 2023년 SOC 예산 투입 계획	65
[그림 II-37] 중기 건설투자 전망	66
[그림 II-38] 건설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67
[그림 II-39] 중기 건설투자 예측치	69
[그림 II-40]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71
[그림 II-41]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원/달러 환율 추이	72
[그림 II-42]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73
[그림 II-43] 중기 설비투자 전망	74

[그림 II-44] 제조업/GDP 비율 추이	75
[그림 II-45] 설비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76
[그림 II-46] 중기 설비투자 예측치	76
[그림 II-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78
[그림 II-48]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인력 추이	80
[그림 II-49]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81
[그림 II-50]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82
[그림 II-51]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83
[그림 II-52]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예측치	83
[그림 II-53] IMF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	85
[그림 II-54]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	85
[그림 II-55] 수출 전망	85
[그림 II-56] 수입 전망	85
[그림 II-57]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	87
[그림 II-58] 경상수지와 주요 결정요인 간 관계	88
[그림 II-59] 중기 경상수지/GDP 예측치	89
[그림 II-60]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91
[그림 II-61]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92
[그림 II-62]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 추이	93
[그림 II-63]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94
[그림 II-64]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95
[그림 II-65] 소비자물가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96
[그림 II-66] 중기 소비자물가 예측치	96

국회에산정책처



제 I 부

대내외 경제여건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1장 세계 경제여건



제1절 최근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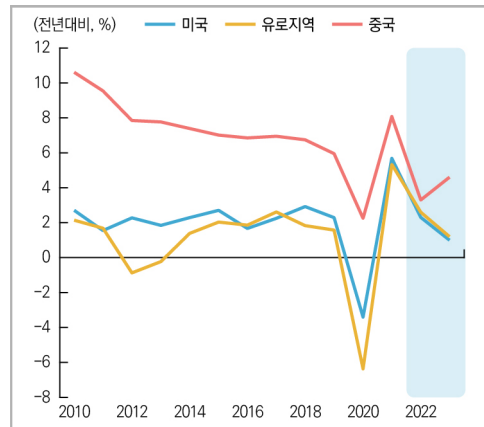
-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
-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일제히 정책금리 인상
- 미 달러화 초강세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모두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세계경제는 2021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간 경제패권 다툼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표면화된 데다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장기간 봉쇄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였다.

[그림 1-1]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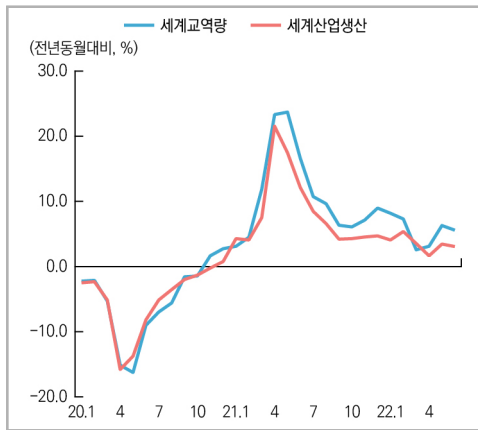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국 성장률 추이



주: 2022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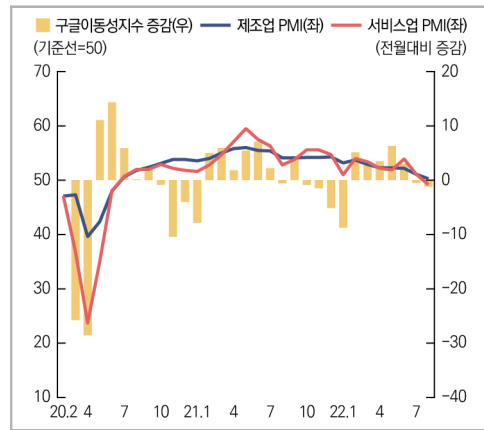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율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는 최근 기준치 50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비스업 PMI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동 지수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업황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어렵게 한다.

[그림 1-3] 산업생산과 교역량 추이



자료: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그림 1-4] 제조업·서비스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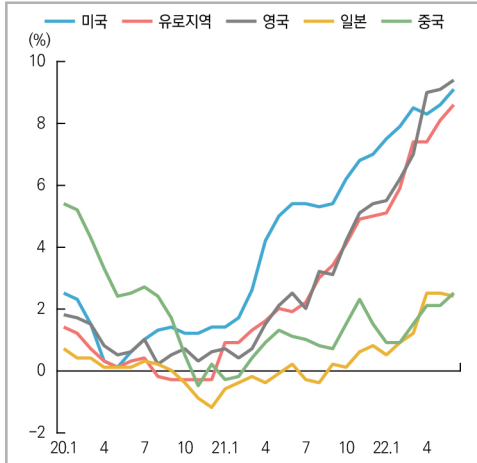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2022년중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면 서비스 수요 증대, 이에 대응한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2월)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원유, 천연가스, 사료용 곡물 등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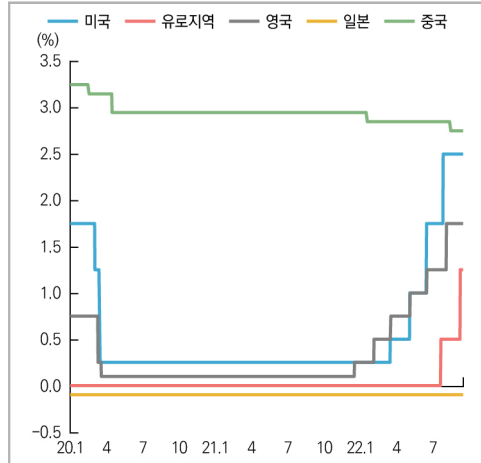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이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은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 등을 통하여 향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들도 물가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가 자칫 세계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¹⁾.

[그림 1-5]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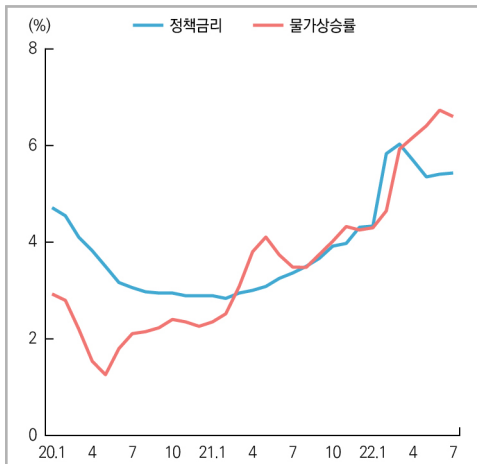
[그림 1-6]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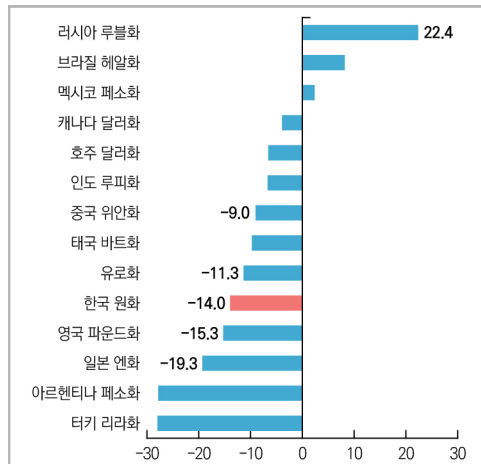
한편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미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그림 1-7] 신흥국의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주: 9개 신흥시장국의 단순평균으로 계산
자료: Bloomberg

[그림 1-8]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



주: 2022년초 대비 절상절하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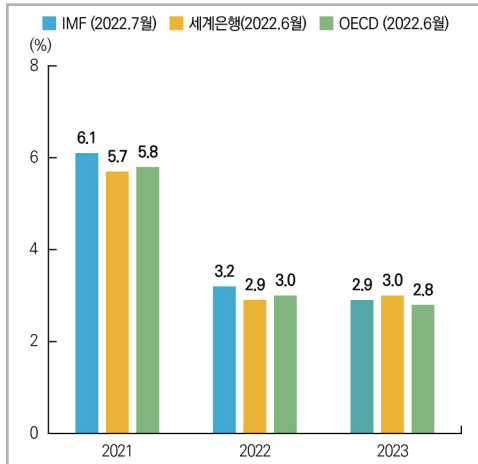
1) World Bank,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2022.9월)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 세계교역량은 3.8% 증가 예상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2.5%, 신흥시장국 6.5%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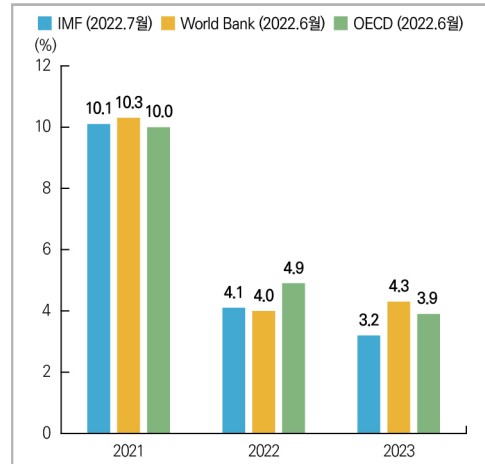
주요 국제기구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로 2022년 3.0%에 비하여 소폭 낮아질 예정이다. 세계교역량도 2022년 4.1%에서 2023년 3.8%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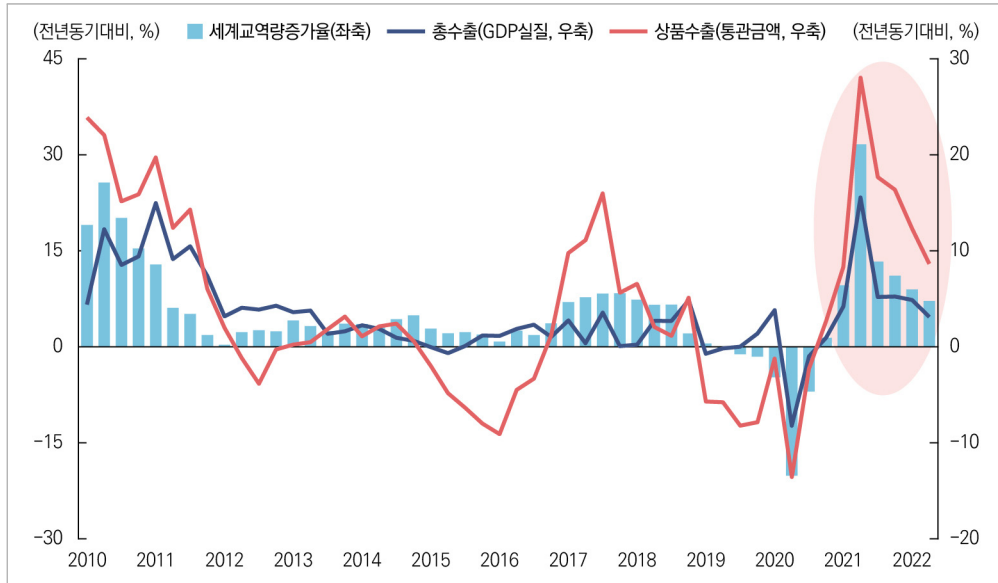
[그림 1-10] 주요 국제기구의 교역량 전망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우리나라 수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2021년 2/4분기(21% 증가)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22년 2/4분기에는 4.8%까지 낮아져 향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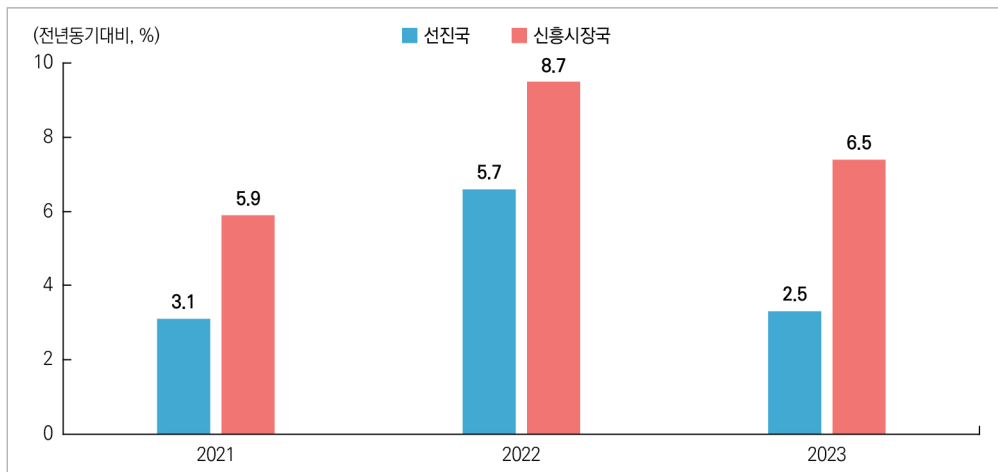
[그림 1-11]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 추이



자료: CPB, 통계청, 한국은행

한편, 2022년중 크게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들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IMF는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5.7%에서 2023년 2.5%까지 낮아지고 신흥시장국은 8.7%에서 6.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중 통화긴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2]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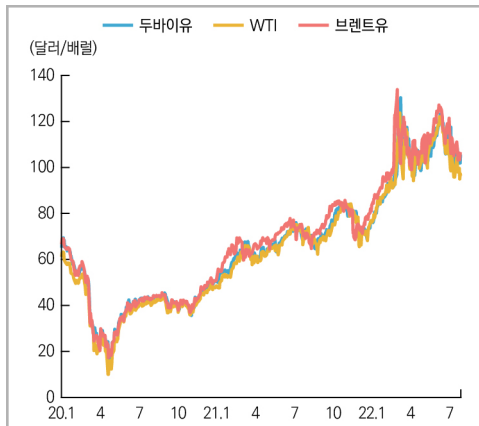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7월)

제3절 국제유가

- 2023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92달러로 전제
- 곡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2023년 전년대비 8.1%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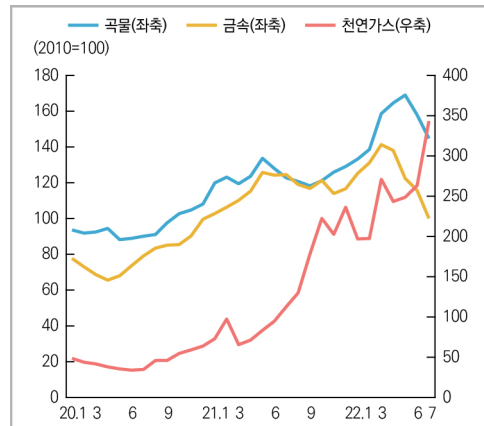
2023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92달러로 전제하였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으나 2022.2/4분기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곡물, 금속 등 기타 원자재가격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 최근에는 고점대비 10~30%정도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공급중단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천연가스는 국제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2022.7월말 현재 연초 대비 1.5배 상승, 2020년 대비로는 7배 상승).

[그림 1-13]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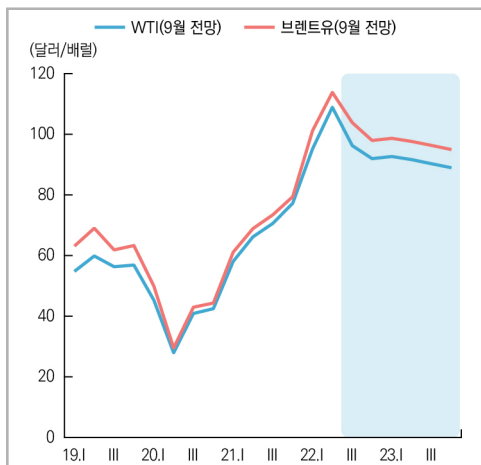
[그림 1-14] 기타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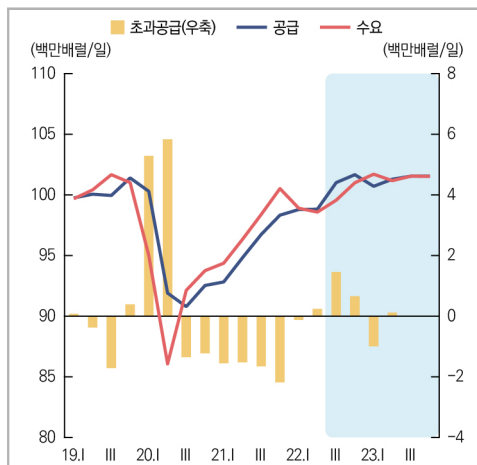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에서는 유가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EIA(미 에너지 정보청, 9월 기준)는 2023년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MF와 World Bank는 90달러 선이 될 것으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원유수급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고 현상태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더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림 1-15] 국제유가 전망



자료: EIA

[그림 1-16] 전세계 원유수급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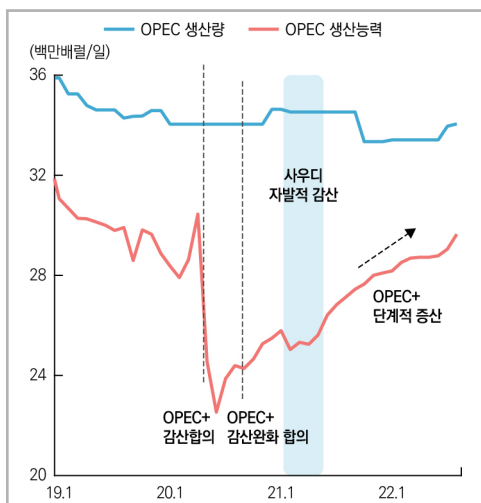


주: 2022년 III분기부터는 전망치(음영 부분)

자료: EIA

이 밖에 OPEC+의 일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과 뉴욕상품시장(NYMEX)으로 유입되는 투기자금이 2021.6월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하향 안정요인이다.

[그림 1-17] OPEC 생산량과 생산능력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18] WTI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금번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전제치

(단위: 전년대비 %,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세계경제성장률	6.1	3.0	2.9	3.4	3.4	3.3
- IMF(2022.7)	-	3.2	2.9	3.4	3.4	3.3
- World Bank(2022.6)	-	2.9	3.0	3.0	-	-
- OECD(2022.6)	-	3.0	2.8	-	-	-
세계교역량 증가율	10.6	4.1	3.8	3.8	3.8	3.8
- IMF(2022.7)	10.1	4.1	3.2	-	-	-
- World Bank(2022.6)	10.3	4.0	4.3	3.8	-	-
국제유가(달러/배럴) ¹⁾	69.4	101.5	92.0	90.0	90.0	90.0
- EIA(2022.9, 달러/배럴)	70.7	104.2	96.9	-	-	-
- IMF(2022.7)	67.3	50.4	-12.3	-	-	-
- World Bank(2022.6)	66.5	42.0	-8.0	-	-	-
가타 원자재가격 (World Bank, 2022.8)	32.7	19.2	-8.1	-3.1	2.4	2.4
금리(국고채 3년물) ²⁾	1.4	3.0	3.0	2.8	2.6	2.6

주: 1) 두바이유 기준 (단, EIA는 브렌트유 기준)

2)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IA, OECD, IMF, World Bank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	○ 통화긴축 지속 및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해제 및 일상회복	○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불안 심화
○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긴축 종료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차질 발생

경제전망의 상방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해제 및 일상회복 진전,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정책 기조 중립전환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는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 달러화 가치상승에 따른 신흥국 물가불안 심화 위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부품 공급차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먼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한꺼번에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자칫 실물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책 동조화로 통화긴축의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 달러화 가치상승이 신흥국 등 환율을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환율 불안은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및 거시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차질 현상이 재발할 우려도 여전하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도시 봉쇄 여파는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더하여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 기술혁신형 성장전략은 미국과의 경제마찰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은 우호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공급망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시도하고 있다.²⁾

2) '탈중국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 (하나금융포커스, 2022.6월호)

제2장 국내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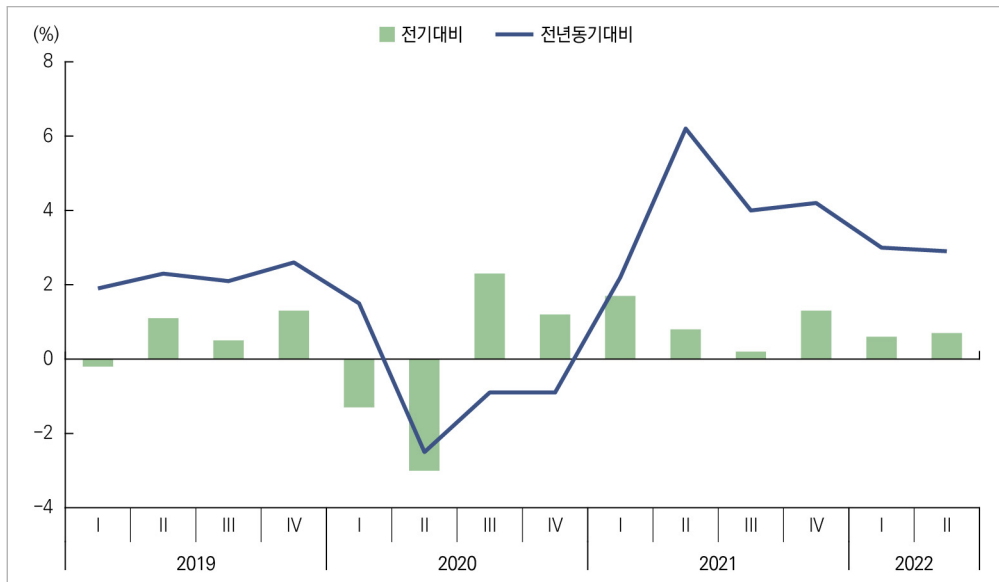
제1절 경제성장률 추이

- 2022년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
-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

가. 경제성장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3.0% 성장하여 2021년 하반기 4.1%에 비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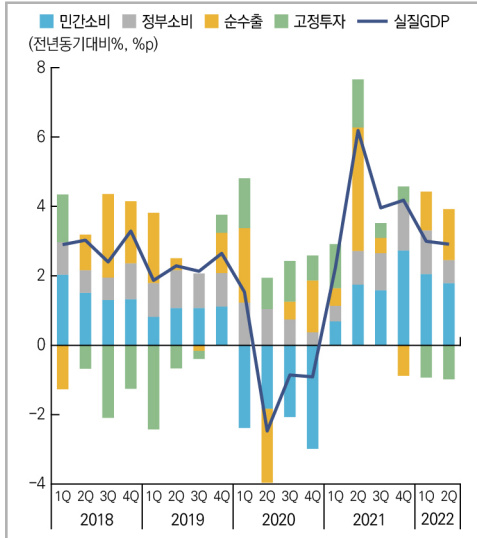
[그림 1-19]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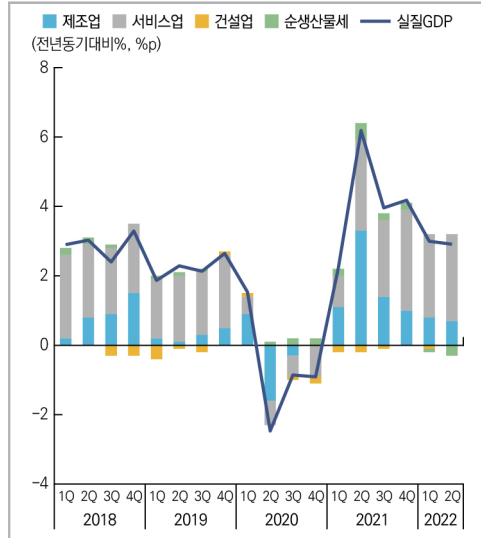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그림 1-20]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1-21]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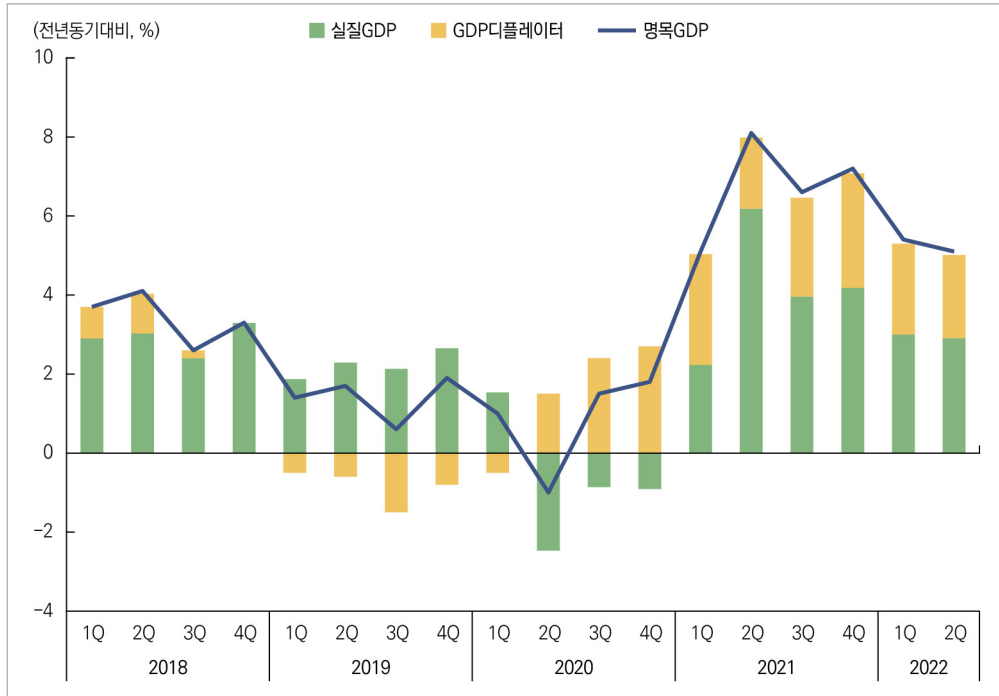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일상회복 위주로 전환되고, 고용여건도 개선된 데 힘입어 상반기중 4.1%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성장기여도 1.9%p). 정부소비도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21연간 5.6% → '22상반 5.2%). 반면 총수출(GDP 물량 기준)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21연간 10.8% → '22상반 6.0%)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총고정자본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제조업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2022년 국내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위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중 5.2%로 2022년 하반기 6.9%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실질GDP 성장률이 1.1%p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GDP디플레이터는 같은 기간중 소폭 낮아졌다('22년 하반기 2.7% → '23년 상반기 2.2%).

[그림 1-22] 명목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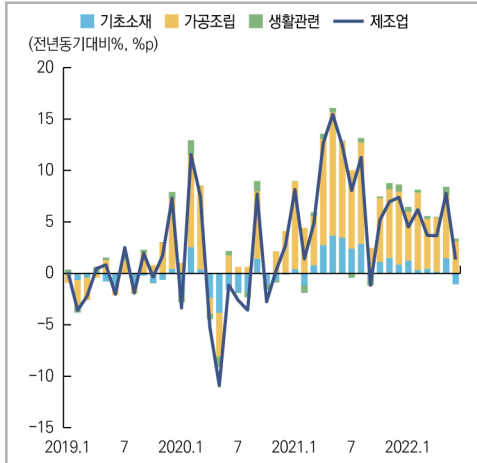
나. 경기국면 진단

제조업 생산은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가공조립형 제조업³⁾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2022.1~7월 수출 증가율: 14.7%)를 지속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최근에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초소재형 제조업은 고유가 등의 영향이 본격화된 4월 이후 생산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6월에는 전년동기대비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3.4%)하였다. 이에 따라 2022.6월에는 전체 제조업 생산수준이 2021.6월 수준에 근접하였다(2022.6월 119.7, 2021.6월 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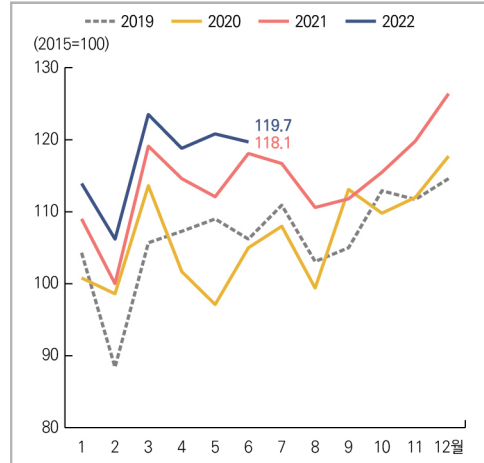
3) 제조업 생산지수를 산업형태별로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기초소재형(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목재, 펄프 등 제조업), 생활관련형(음식료품, 의복, 가죽, 가구 등 제조업)으로 재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각 유형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5%, 31.2%, 11.3%이다.

[그림 1-23]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1-24]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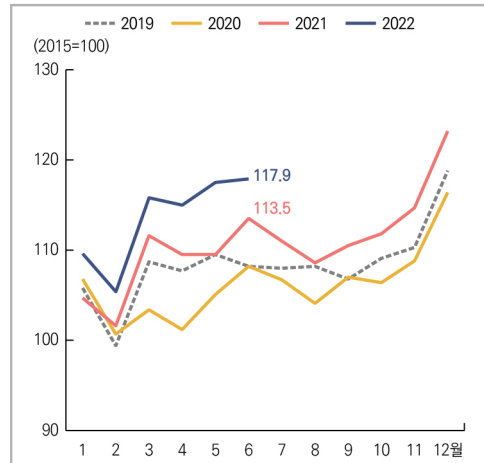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2021년 이후의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비대면 서비스업⁴⁾이 회복을 주도하였으나 동년 하반기부터는 대면 서비스업의 확장세가 눈에 띈다. 서비스업의 강한 회복세는 2022년과 2021년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수준 차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2022.6월 117.9, 2021.6월 113.5).

[그림 1-25]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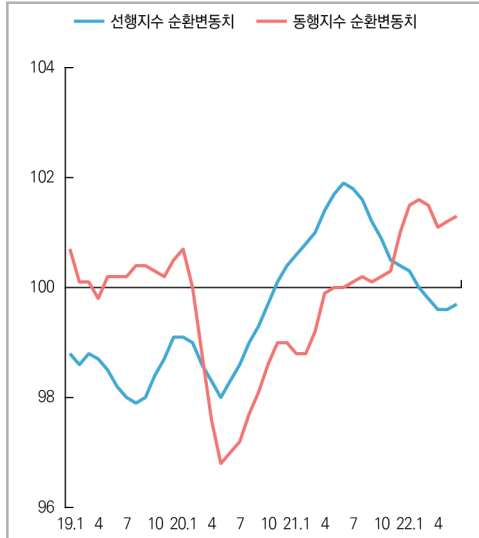
[그림 1-26]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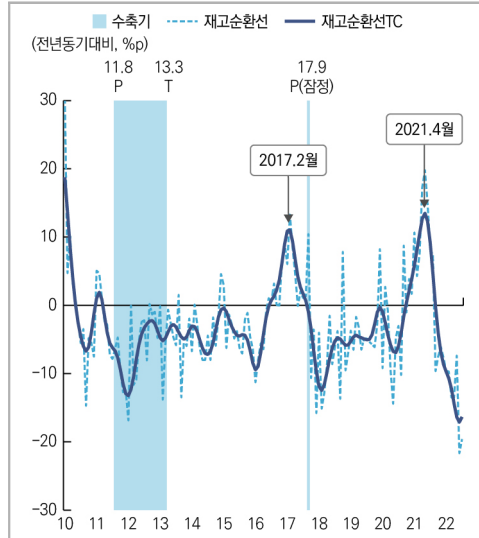
4)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대면·비대면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대면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비대면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사회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을 각각 포함한다.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7%, 67.3%이다.

[그림 1-27]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28] 제조업 재고순환선



주: 1) 재고순환선 = 생산증가율 - 출하증가율
 2) TC는 X-12에 의한 추세순환 요인 추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5월 이후 기준치인 100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예고지표로 이용되는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6월을 고점으로 하락하여 2022.7월에는 99.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재고순환선(생산증가율-출하증가율)도 2021.4월을 고점으로 감소하여 2021.9월 이후에는 마이너스 값⁵⁾을 기록하고 있다.

5) 이는 생산 증가율보다 출하 증가율이 더 높음을 의미하여 기업들이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생산감축을 통한 재고조정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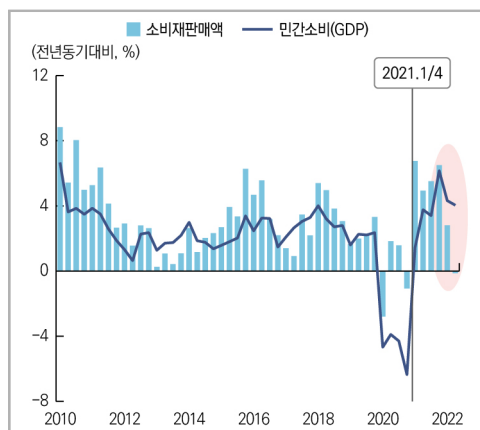
제2절 내수와 수출입 여건

- 내수는 경기하강 신호가 우세 (상승/하강 신호가 혼재)
- 수출은 증가세가 크게 약화
- 수입은 높은 증가세 지속
- 무역수지는 2022년 들어 큰 폭 적자, **상품수지도 흑자 폭 축소**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를 중심으로 소폭 흑자**

가. 내수

소비지표들은 2022년 들어 증가율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⁶⁾. 소비재판매액은 금년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여 2/4분기에는 소폭 마이너스(-0.1%)를 기록하고 있다. 도소매 서비스지수(자동차 판매 포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그림 1-29] 소비재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30] 도소매생산과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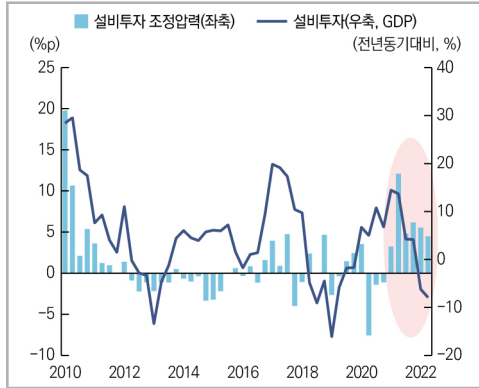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은 2022년 들어 2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건설기성액(건설투자 동행지표)은 금년 중 2분기 연속 증가하여 설비투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6) 월별 소비재판매액 지수 등은 실질GDP 발표에 앞서 민간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정보지표이다.

[그림 1-31]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32] 건설기성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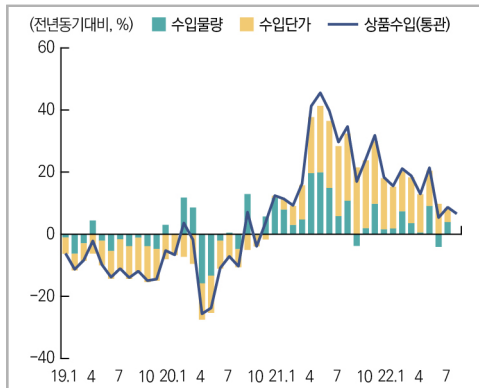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나. 수출입

수출(통관기준, 상품) 증가율은 2021.5월을 고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22.5월 이후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22.5~7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3 → 8.7 → 6.6%). 수출물량(실질금액) 증가율은 최근 0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단가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증가율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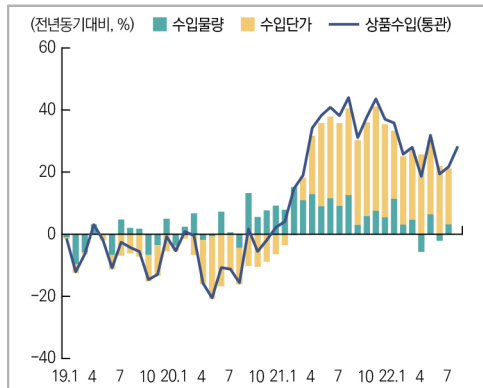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수입물량(실질금액) 증가율은 낮은 편이나, 수입단가는 최근의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3]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34]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OX 2] 지역별·품목별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전년대비, %, 비중, %p)

	품목명	2021년		2022년(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반도체	29.0	19.9	14.0	19.5	3.5
2	석유제품	57.7	5.9	93.1	9.4	6.6
3	석유화학	54.8	8.5	10.2	8.4	1.1
4	일반기계	9.5	7.8	4.7	7.3	0.5
5	자동차	24.2	7.2	9.3	7.2	0.9
6	철강	36.9	5.6	20.5	5.8	1.4
7	자동차 부품	22.2	3.5	3.0	3.3	0.1
8	디스플레이	18.9	3.3	11.2	3.1	0.5
9	선박	16.4	3.6	-22.4	2.6	-1.1
10	컴퓨터	25.5	2.6	15.9	2.5	0.5
11	바이오	16.8	2.5	13.6	2.5	0.4
12	무선통신기기	24.7	3.0	-6.6	2.3	-0.2
13	섬유	14.0	2.0	2.8	1.8	0.1
14	이차전지	15.5	1.3	12.7	1.4	0.2
15	가전	24.0	1.3	0.2	1.2	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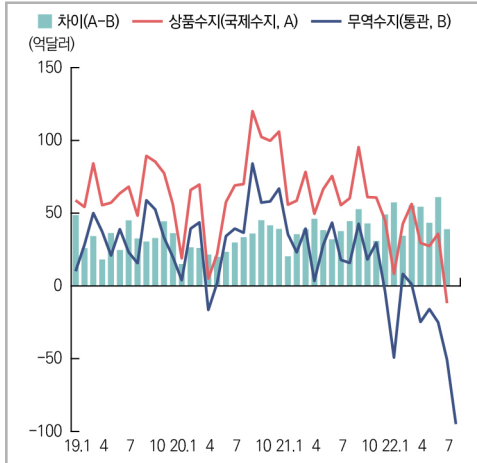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전년대비, %, 비중)

지역	2021년		2022년(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중국	22.9	25.3	4.0	23.0
아세안	22.3	16.9	28.9	18.6
미국	29.4	14.9	17.2	15.8
EU(27)	33.9	9.9	8.9	9.7
베트남	16.9	8.8	17.5	8.9
일본	19.8	4.7	8.8	4.5
중남미	32.4	4.0	11.5	4.0
인도	30.7	2.4	31.0	2.8
중동	6.3	2.4	18.1	2.4
CIS	19.8	2.1	-18.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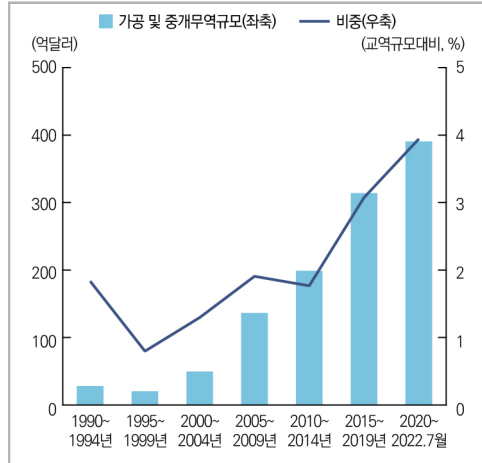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35]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추이



주: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무역수지(수출입차)는 통관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36] 가공·중개무역 규모 추정치¹⁾



주: 1) 가공·중개무역 = 상품수지 - 무역수지
 2) 교역규모 = 상품수출 + 상품수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2022년 들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22.1~8월중 251억달러 적자). 이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원자재수입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대중 무역에서 최근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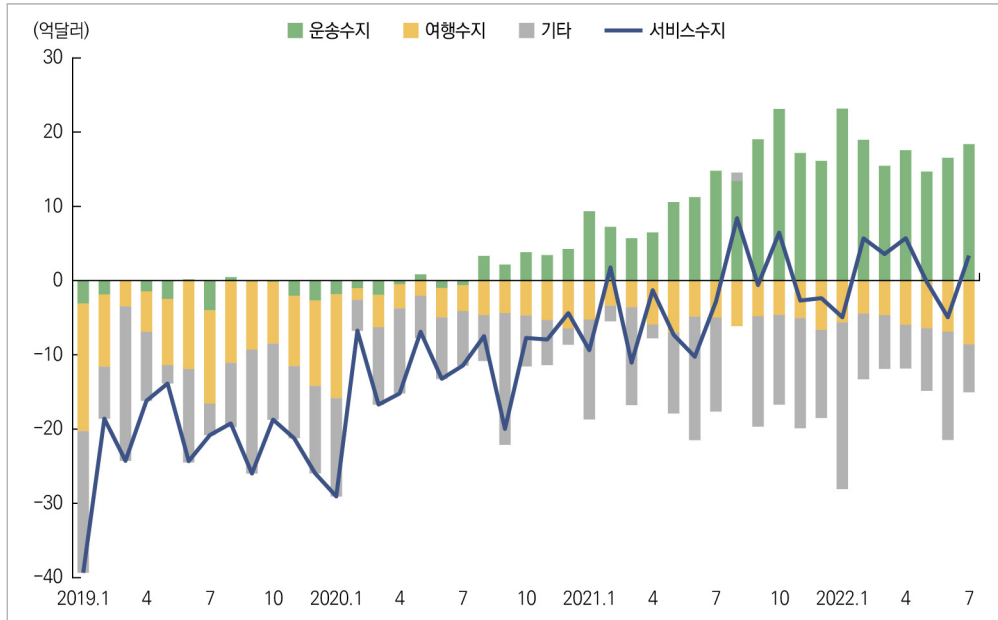
상품수지(국제수지 기준)도 흑자 폭이 2022년 들어 축소되었다. 특히 7월에는 동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수지상 상품수지는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대체로 흑자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는 동 수지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상품의 수출대금(가공·중개무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⁸⁾. 우리나라의 가공·중개무역 규모는 전체 교역의 4%, 469억 달러(2021년 추정치) 정도로 2000년 이후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왔다.

서비스 수지(국제수지 기준)는 2021년 이후 운송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2021년 이후의 운송수지 흑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올랐던 데 주로 기인한다(컨테이너당 2천달러→1만달러). 한편 여행수지는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객 수가 급감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7) [NABO Focus 제49호]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2022.8.17.)

8) 즉, 상품수지에는 우리나라 관세선을 거치지 않고 수출되어 무역수지에서 제외되는 거래까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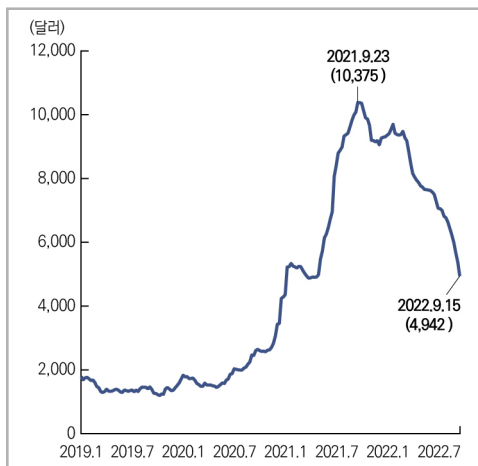
[그림 1-37]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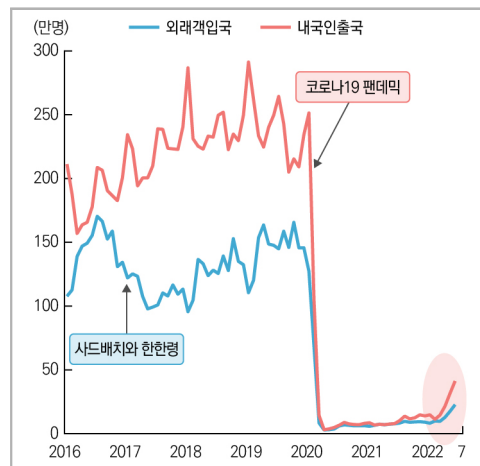
앞으로 서비스 수지는 적자 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해외여행객 수도 2022.4월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22.4월 22만명 → 5월 32만명 → 6월 41만명).

[그림 1-38] 컨테이너 운임 추이



주: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39] 출입국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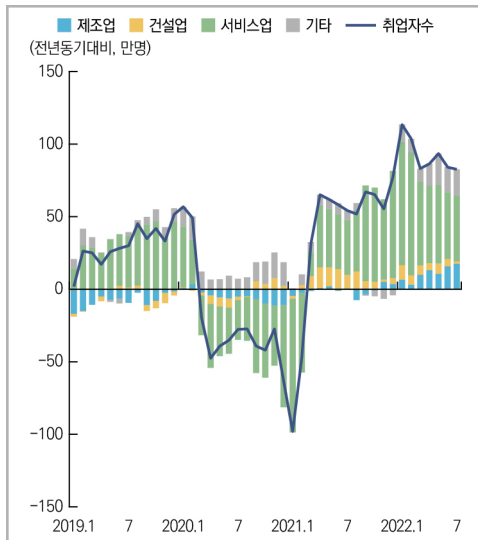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3절 고용과 물가 여건

- 고용은 이례적인 호조를 지속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높은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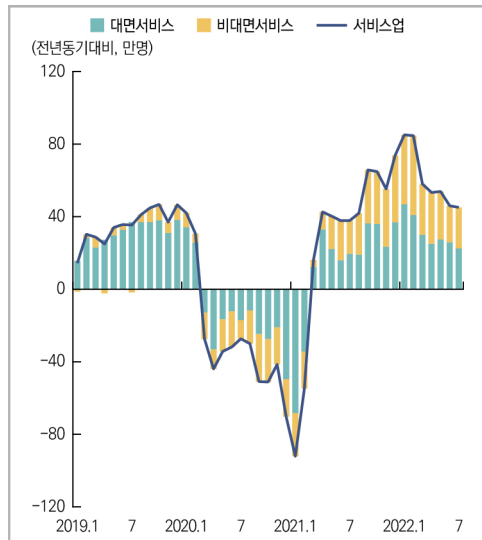
고용은 2022년 들어 취업자 수가 매월 전년동기대비 8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이례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대면·비대면 가릴 것 없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제조업 등 여타 산업 취업자수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2022.3월 이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소 둔화(80만명선 → 50만명선)하였다.

[그림 1-40]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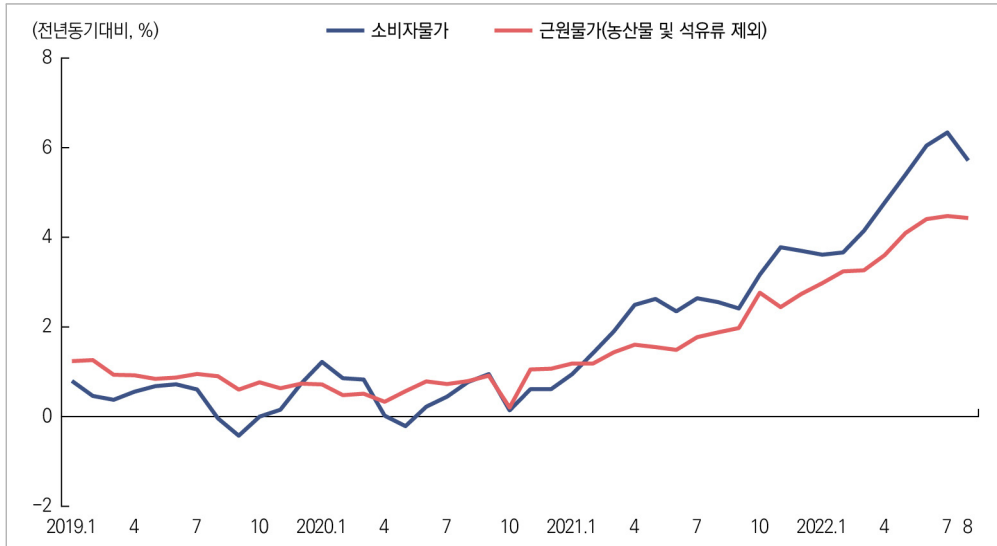
[그림 1-41]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물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상승 등이 겹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2.1월(3.6%, 3.0%)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8월 현재 각각 5.7%, 4.4%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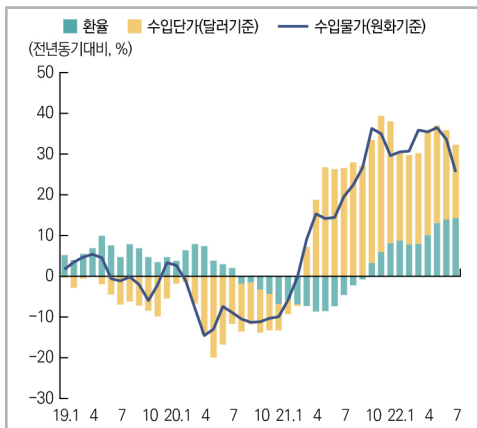
[그림 1-42]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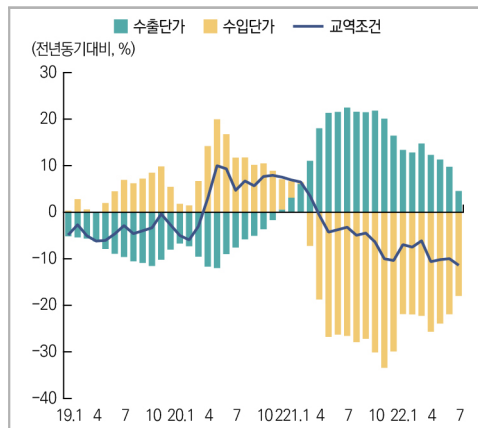
수입물가를 변동요인별로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수입단가의 영향이 가장 컸으나 2022년 들어서는 환율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악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반도체 가격 등 주력 수출품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그림 1-43]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44]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제4절 전망의 리스크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고용여건 개선 지속	○ 고물가 및 금리 인상
○ 서비스업 업황 호조 유지	○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 수입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화	○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경제전망의 상방요인에는 고용여건 개선 지속, 서비스업 업황 호조, 수입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화 등이 있다. 최근의 민간소비 및 서비스업 호조는 취업자 수의 이례적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향후 국내 경기의 향방은 고용여건의 개선 지속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천연가스를 제외한 수입 원자재가격은 급등세에서 벗어나 최근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높은 물가 오름세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실질임금을 낮춰 가계의 구매력을 낮춰 소비기반을 약화시킨다. 또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과 자본조달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제약한다.

다음으로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다. 환율상승은 원자재 등의 수입부담을 높이며 수입물가 상승은 2차 파급효과를 통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다. 따라서 환율불안은 시차를 두고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의 업황이 부진한 데다 2023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될 예정이다. 무역수지 감소는 외화조달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국회에산정책처



제2부

지출 부문별
중기 전망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제1장 경제성장률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4.1	3.0	2.1	2.5	2.1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	○ 통화긴축 지속 및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해제 및 일상회복	○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불안 심화
○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긴축 종료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차질 현상

우리 경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5%와 2.1% 성장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등으로 수출과 내수 회복세가 함께 약해지면서 성장률이 2.5%에 머물 전망이다. 2023년에는 성장률이 2.1%에 그칠 예정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다소간 안정되겠으나 통화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이 모두 2022년을 밀돌게 될 예상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2022년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7% 증가할 전망이나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4% 증가에 그치겠다. 정부소비는 2022년에 5.3% 증가하겠으나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2023년에는 증가율이 4.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22년 건설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2.9%의 부진을 보이겠지만 2023년에는 3기 신도시 착공 등에 힘입어 0.4%의 회복세를 나타내겠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중 -4.9%의 부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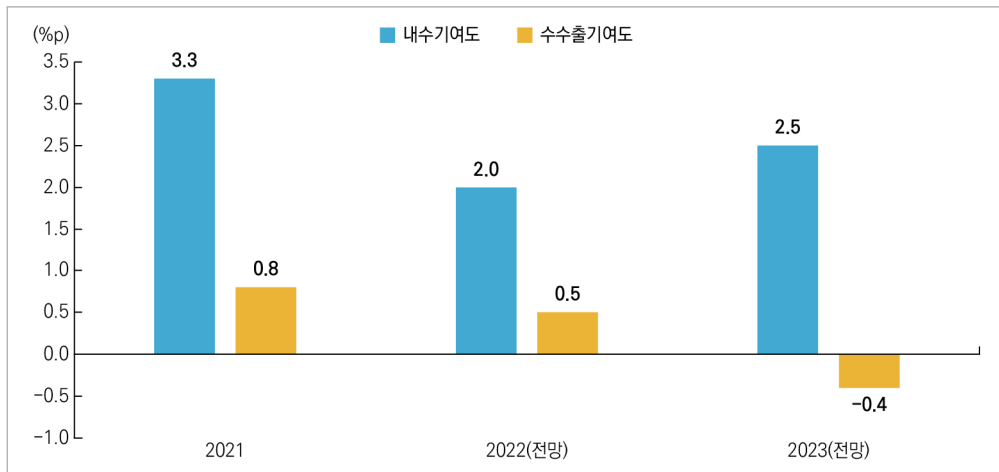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에는 친환경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1.2% 증가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등 신성장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2022년 4.3% 성장할 예정이다. 2023년에도 비대면 IT서비스 수요 증가, 미디어 콘텐츠 공급 서비스 기업(OTT, over-the-top)의 신규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4.4% 증가하겠다. 총수출은 2022년중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4.6%까지 낮아지겠으며 2023년에도 4.1%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총수입은 2022년 4.2%,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회복이 기대되는 2023년에는 6.1%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2년 2.0%p에서 2023년 2.5%p까지 높아지겠으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2년 +0.5%p에서 2023년 -0.4%p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2년 4.7%, 2023년 4.6%로 전망하였다. 2023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하겠으나('22년 2.5% → '23년 2.1%)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대비 오히려 상승해('22년 2.2% → '23년 2.5%) 명목성장률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그림 II-1]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9) 자세한 내용은 [BOX 3] 교역조건 변화와 GDP디플레이터 간 관계(p.32) 참조.

[표 II-1] 2022~2026년 국내 경제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국내총생산	4.1	2.5	2.1	2.3	2.3	2.1
민간소비	3.7	3.7	2.4	2.2	2.0	2.0
정부소비	5.6	5.3	4.0	4.0	3.9	3.8
건설투자	-1.6	-2.9	0.4	3.6	3.2	2.9
설비투자	9.0	-4.9	1.2	4.5	4.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3	4.4	4.7	4.5	4.3
총수출	10.8	4.6	4.1	5.2	5.9	5.9
총수입	10.1	4.2	6.1	7.5	7.8	7.8
경상수지(억달러)	883	350	320	280	250	220
상품수출(통관)	25.7	9.9	0.5	5.9	6.9	6.8
상품수입(통관)	31.5	18.4	1.1	6.6	7.7	6.7
소비자물가	2.5	5.2	3.3	2.7	2.4	2.1
GDP디플레이터	2.5	2.2	2.5	2.0	1.8	1.8
명목국내총생산	6.7	4.7	4.6	4.3	4.1	3.9

주: 1) 2022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관세청,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표 II-2] 명목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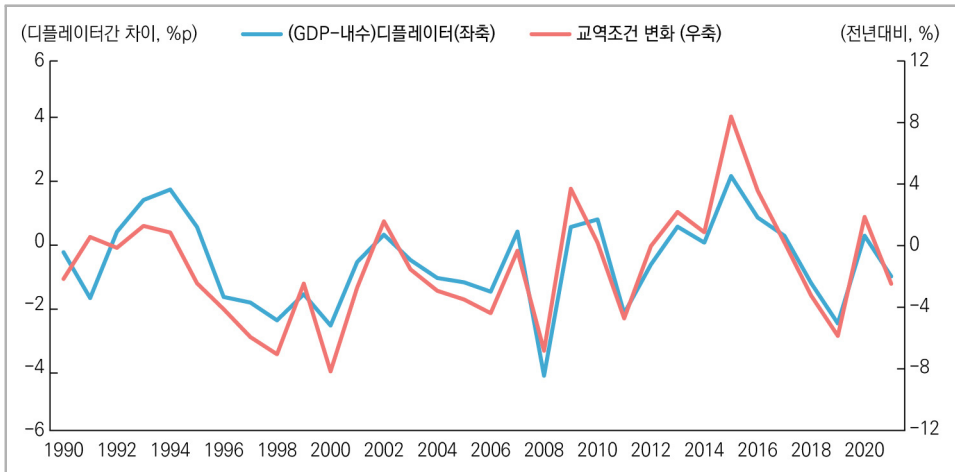
	2020	2021	2022(전망)	2023(전망)
명목국내총생산	0.8	6.7	4.7	4.6
실질 국내총생산	-0.7	4.1	2.5	2.1
GDP디플레이터	1.5	2.5	2.2	2.5

주: 1) 2022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음영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3] 교역조건 변화와 GDP디플레이터 간 관계

GDP는 내수(소비+투자) 외에 대외거래(수출입)를 포괄한다. 따라서 수출입 가격의 상대적 변동 즉, 교역조건 변동이 발생하면 GDP디플레이터는 그 차이만큼 내수디플레이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아래 그림은 디플레이터 간 차이(GDP-내수)와 교역조건 변화 간 관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내수디플레이터 상승률보다 높아진다.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교역조건 변화와 GDP디플레이터 간 관계

(단위: 전년대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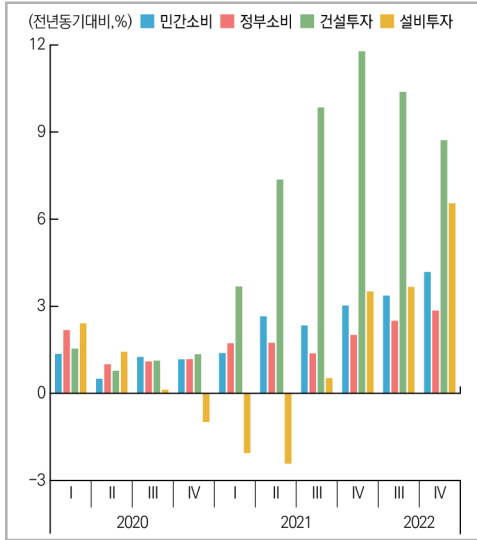
	디플레이터 증감률		차이 (A-B, %p)	교역조건 변동	원자재가격 증감률	관찰치 ²⁾ (개)
	GDP(A)	내수(B)				
전기간 ¹⁾	2.9	3.4	-0.5	-1.0	6.6	22 (32)
하락기	3.4	2.9	0.6	2.7	-12.3	9 (16)
상승기	2.6	3.8	-1.2	-3.5	19.7	13 (16)

주: 1) 1990~2021년, 상승/하락기는 수입원자재가격 상승/하락기로 정의

2) 전체 상승/하락기 중 교역조건 변동을 동반한 경우를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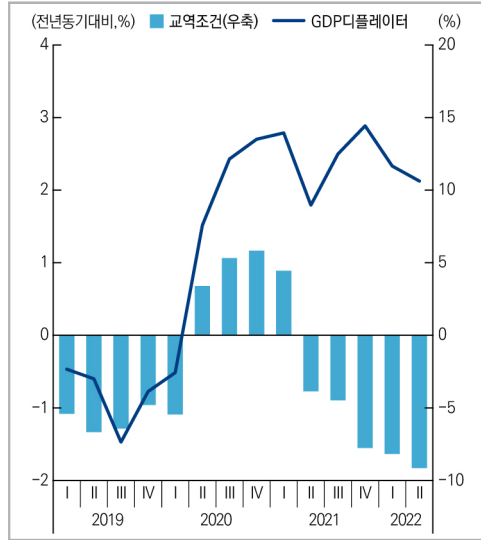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11-2] 내수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3]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한국은행

2023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2022년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미 달러화 초강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 차질 가능성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제2절 중기 전망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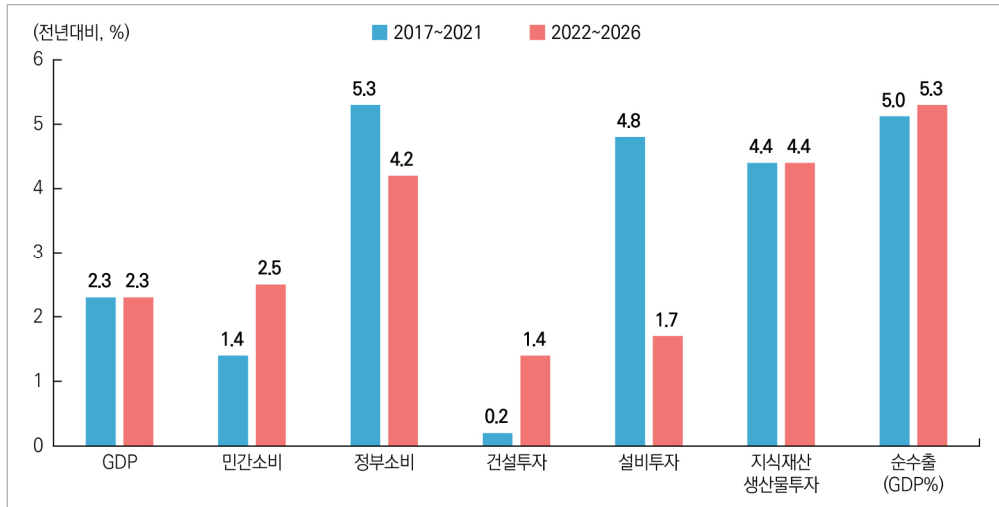
- 2022~2026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3% 성장 예상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2.5	2.1	2.3	2.3	2.1	2.3	2.3

2022~2026년 기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3% 성장할 전망이다. 이전 5년(2017~2021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5년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2022~2023년 기간 중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약되다가 2024~2025년 기간 중 균형성장경로¹¹⁾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4] 실질GDP 지출부문별 중기 전망(5년단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이 전망은 예결안 심의시 정부 경제성장률 전제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경제정책 방향 및 관련 공청회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11) 2022~2026년 기간중 잠재GDP 성장률은 2.2% 내외로 추정된다.

제3절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2023년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2.1%, 정부 2.5%
- 2023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4.6%, 정부 4.5%

2023년 실질GDP 성장률을 국회예산정책처는 2.1%, 정부는 2.5%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지출항목별로도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정부보다 낮았다.

[표 II-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3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전년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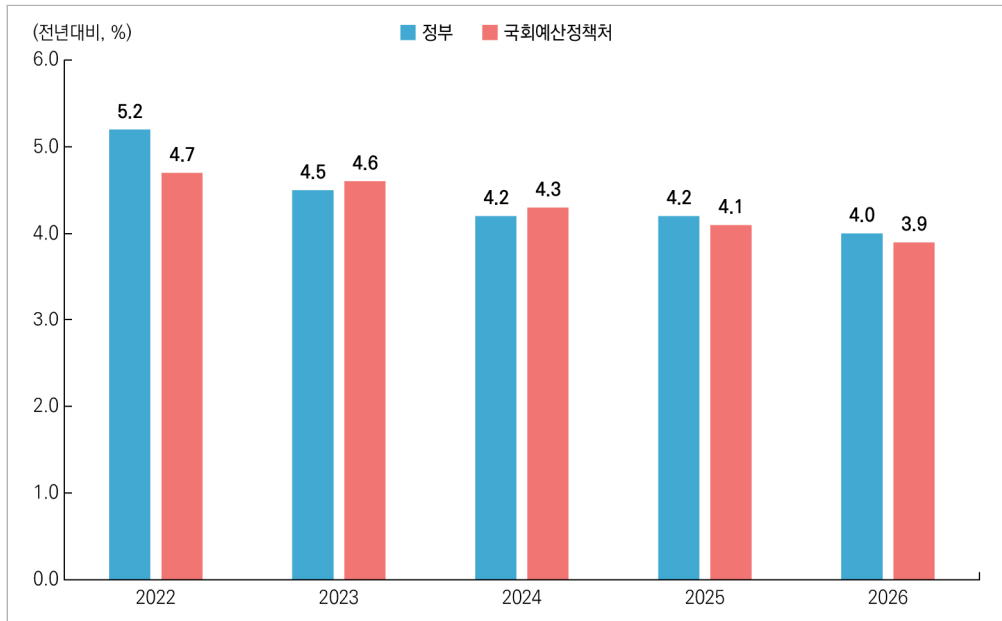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실질GDP	2.1	2.5
민간소비	2.4	3.2
정부소비	4.0	-
설비투자	1.2	2.7
건설투자	0.4	3.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3.7
수출(통관기준)	0.5	1.0

주: 1) 기획재정부는 정부소비는 전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은 통관기준으로만 전망치를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2022년 명목GDP 성장률을 각각 4.7%와 5.2%로, 2023년은 4.6%와 4.5%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명목성장률 전망치 간 차이는 교역조건 변동 방향에 대하여 견해가 다른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2년에는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동 가격이 하향 안정될 예상인 2023년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이후 전망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성장률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림 II-5]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제2장 민간소비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전년(3.6% 전망)보다 1.2%p 낮은 2.4%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3.6	4.1	3.2	3.7	2.4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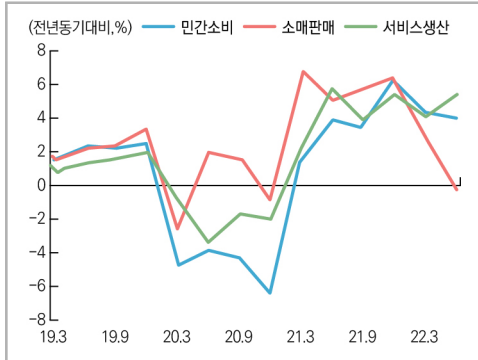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서비스 수요 확대 지속	○ 실질 구매력 약화
○ 해외 여행 수요 증대	○ 금리 상승
	○ 고용 및 소득여건 약화
	○ 소비심리 위축

2022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¹²⁾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하였다. 소비는 일상회복 위주의 방역정책 전환과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상반기 성장을 견인했다.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었다. 고용 및 소득여건도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을 바탕으로 호조를 보였다. 2022년 1/4 및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3.0%와 2.9%였는데 이 중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각각 2.1%p와 1.8%p에 달하였다.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56)

12) 민간소비는 크게 가계소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로 구분된다. 가계소비는 다시 국내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공제항목인 비거주자 국내소비로 나뉜다.

[그림 11-6] 소비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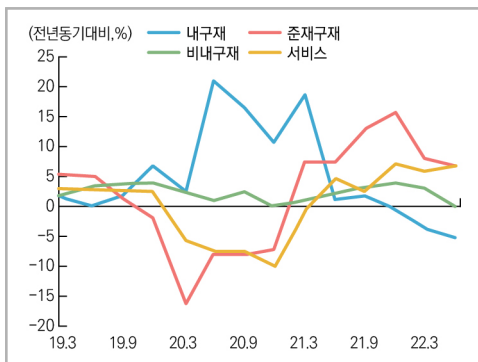
[그림 11-7]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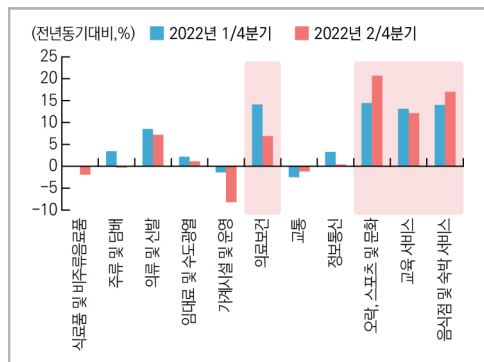
민간소비 중 국내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직후에는 자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위주로 확대되었으나,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활동이 활발해진 2022년 상반기 이후로는 서비스가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다.¹³⁾ 특히 의료보건(10.3%), 오락·스포츠 및 문화(17.9%), 교육(12.6%), 음식점 및 숙박(15.7%) 서비스는 상반기 중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림 11-8]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주: 재화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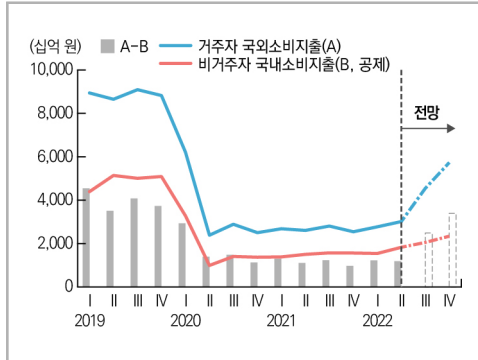
[그림 11-9]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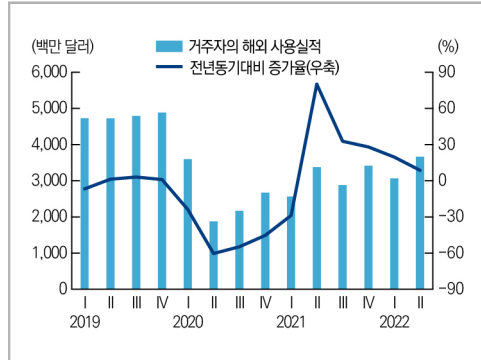
13) 소비회복의 양상은 재화특성에 따라 달랐다. 재화소비는 2020년 4/4분기에 이미 2019년 4/4분기 수준을 넘어섰으나 서비스 소비는 2022년 2/4분기에 들어서야 2019년 4/4분기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림 II-10] 거주자국외소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11] 거주자의 해외카드 사용실적



자료: 한국은행

거주자 국외소비¹⁴⁾는 2022년 들어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급감하였던 해외여행객 수가 3월 21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등 국내외 출입국 절차가 단순화된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도 증가하였다.¹⁵⁾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실적¹⁶⁾은 달러기준 전년동기대비 8.6%(전기대비 19.6%) 증가하였다.

2022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3.2%, 연간으로는 3.7%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 소비는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예상이며 거주자 국외소비는 국내외 입국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¹⁷⁾

다만 민간소비 여건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가속도의 둔화와 실질임금 하락이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00년 상반기(112.4만명) 이후 가장 높은 94.1만 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3/4분기 이후로는 증가 폭이 축소되어 하반기 중 64.9만 명 증가에 그칠 예정이다.¹⁸⁾

14) 거주자 국외소비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지출한 금액으로 국민계정 상 민간소비의 가산 항목이다. 반대로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는 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비지출한 금액이나 민간소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차감항목). 국민계정에서는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어디인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으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지출한 금액일지라도 경제활동의 중심은 여전히 국내에 있다고 보아 이를 민간소비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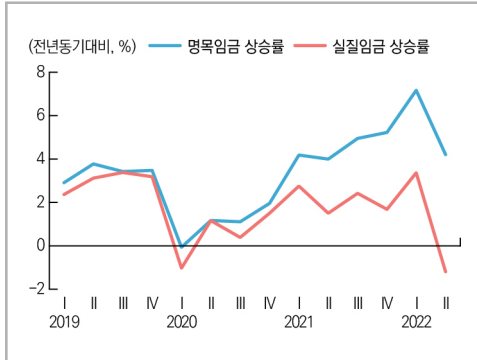
15) 한국은행(2022), 「2022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16) 거주자가 해외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국내카드 실적

17) 국내에서는 9월 3일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었으며, 일본 정부도 10월 11일부터 무비자 관광을 허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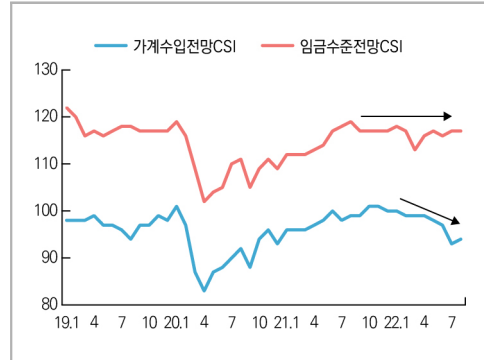
18)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참고

[그림 II-12] 임금상승률



자료: 통계청

[그림 II-13] 소비자동향지수



자료: 한국은행

임금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왔으나 최근에는 임금수준전망CSI가 정체되고 가계수입전망CSI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실질임금은 2022년 중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¹⁹⁾ 2/4분기 이후 물가 오름세가 커지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며(1/4분기 3.4% → 2/4분기 -1.2%) 감소 폭은 하반기 중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중 민간소비는 2.4%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율이 1.3%p 낮아질 예정이다. 전망의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과 같다. 상방요인으로는 서비스 소비 호조와 거주자 국외소비의 정상화 지속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비거주자 국내소비(민간소비 차감항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순국외소비의 민간소비 기여도는 2022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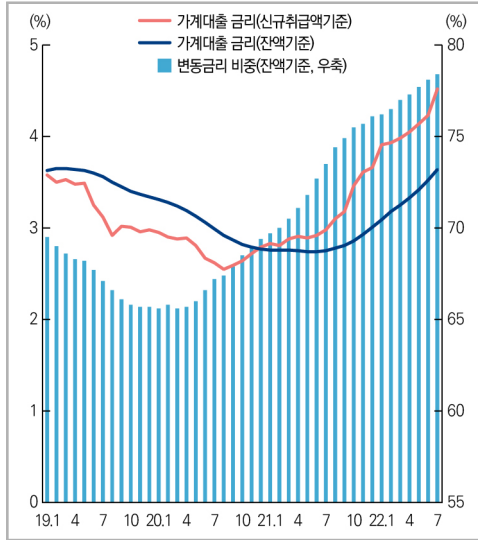
하방요인으로는 고용 증가세 둔화, 실질 구매력 약화, 금리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취업자 수는 2023년 8.6만명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79.5만명 전망)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²¹⁾ 명목 임금 상승률도 3.9%로 전년 4.9%에 비해 낮아지겠다. 더욱이 물가는 2023년에도 높은 오름세를(3.3%) 보일 예상이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19) 국회예산정책처(2022)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명목임금은 4.9% 증가할 전망으로, 소비자물가 전망치 5.2%에 못 미친다.

20) 자세한 내용은 [BOX 4] 순국외소비 동향과 민간소비(p.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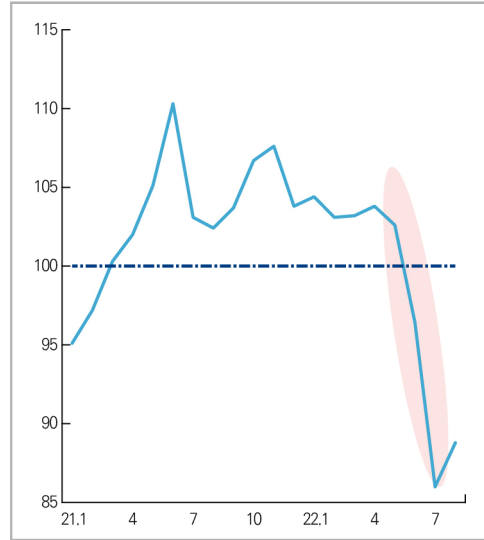
21)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참고.

[그림 II-14] 변동금리 비중 및 가계대출 금리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15]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금리는 2022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²²⁾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1년 6월 2.74%에서 2022년 7월 3.64%로 0.9%p 상승하였으며,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8.4%(2021.7월 기준)에 이른다.

소비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이후 석 달 연속 큰 폭 하락하였다. 8월과 9월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22)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p(0.5%→2.5%) 인상하였다(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BOX 4] 순국외소비 동향과 민간소비

순국외소비(거주자 국외소비-비거주자 국내소비)가 민간소비 전망의 변수가 되고 있다.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민간소비의 가산항목, 비거주자의 국내소비는 민간소비의 차감항목이다. 따라서 이들 두 항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면 민간소비도 영향을 받는다. 참고로 민간소비는 소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내소비는 소비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정의된다.

국내소비와 민간소비의 구성

		소비자의 거주지		
		거주자	비거주자	합계
소비 지역	국내	거주자 국내소비(A)	비거주자 국내소비(B)	국내소비(A+B)
	국외	거주자 국외소비(C)		
	합계	민간소비(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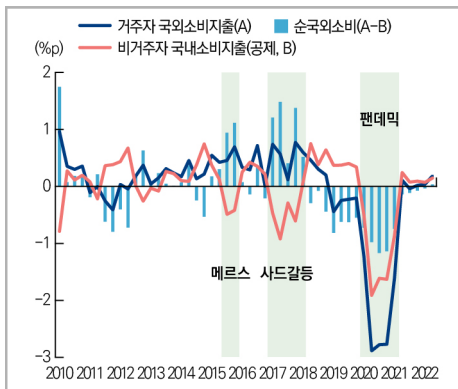
주: 민간소비 = 국내소비 + 거주자 국외소비 - 비거주자 국내소비

자료: 박종호, 정규철(2018)

순국외소비의 민간소비 구성비는 통상 2% 내외로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여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2020년 중 순국외소비는 43.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소비에 대한 기여도도 -1.0%p까지 확대되어 전체 민간소비 감소(-4.8%)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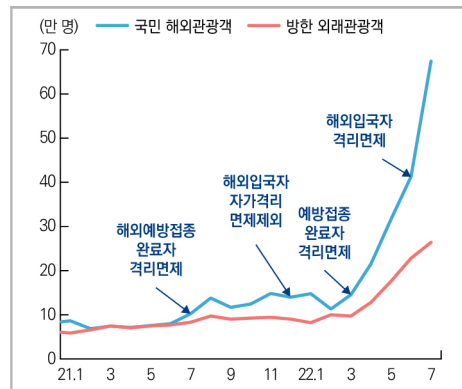
유사한 과거 사례로는 메르스가 확산된 2015년 3/4분기와 4/4분기, 중국과 사드 갈등이 격화된 2017년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에 순국외소비의 민간소비 기여도는 분기 평균 1%p 정도까지 확대된 바 있다.

거주자국외소비·비거주자국내소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출입국자 수



주: 출국자는 국민 해외관광객을, 입국자는 방한 외래관광객을 의미

자료: 한국관광공사

순국외소비는 2022년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일 예정이다. 출국자 수는 출입국 규제가 완화된 7월 이후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1월 14.7만명→7월 67.4만명). 반면 입국자 수는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1월 8.2만명→7월 26.4만명).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거주자 국외소비 정상화 속도가 비거주자 국내소비를 앞설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2022년 중 거주자 국외소비가 2019년의 45%, 비거주자 국내소비가 40%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 순국외소비의 민간소비 기여도는 0.4p% 정도로 추산된다.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변동내용

일시	내용
2021.7.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2021.12.3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화
2022.3.21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2022.6.8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2022.9.3	입국전PCR 검사폐지

제2절 중기 전망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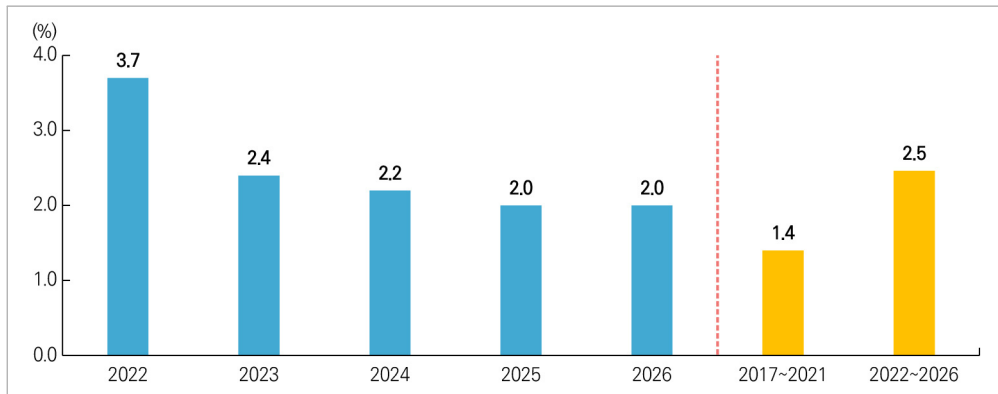
- 2022~2026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5% 증가
 - 지난 5년(2017~2021년)에 비해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3.7	2.4	2.2	2.0	2.0	1.4	2.5

2022~2026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5%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서비스소비와 거주자 국외소비가 회복하며 3.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기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점차 약화될 예정이다.

[그림 II-16] 중기 민간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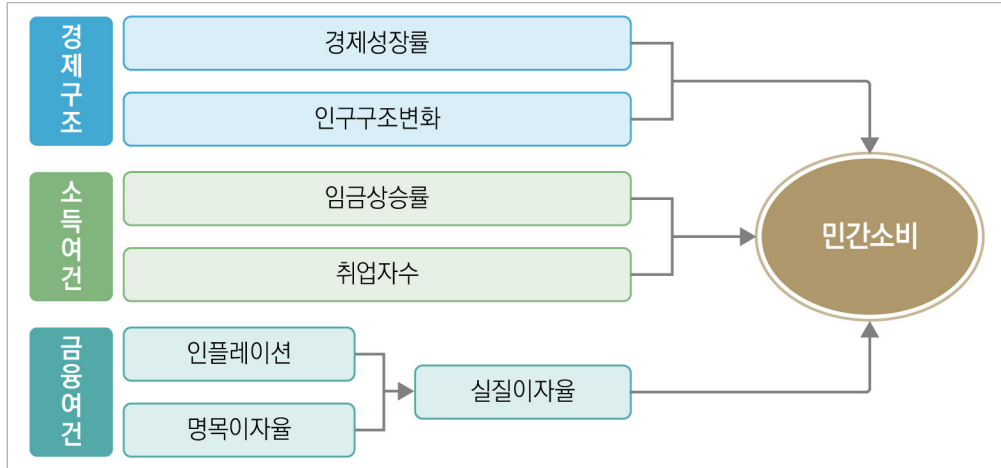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3) 이 전망은 소비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안 편성, 세제개편, 세수추계 등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소비의 중기 성장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세나 소득공제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세수를 전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2~2026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NABO의 민간소비 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아래 그림은 민간소비와 경제구조, 소득여건, 금융여건 등 제 결정요인과 민간소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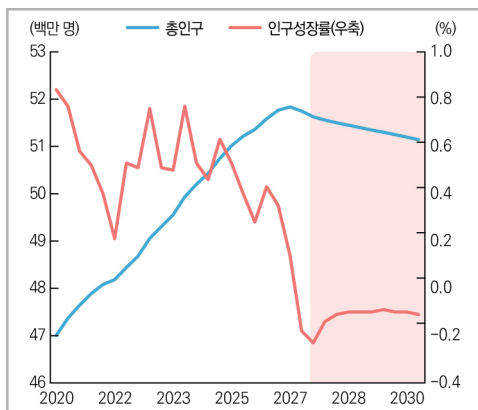
[그림 11-17] 민간소비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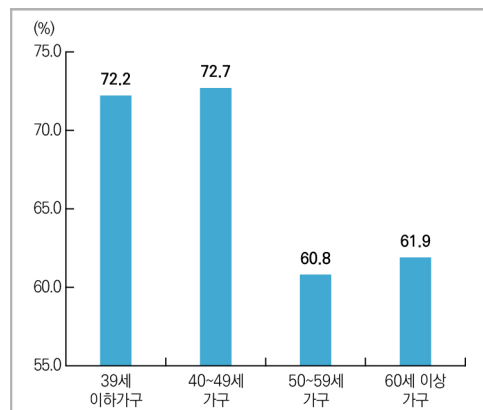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중기에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전환되었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인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11-18] 총인구



자료: 통계청

[그림 11-19]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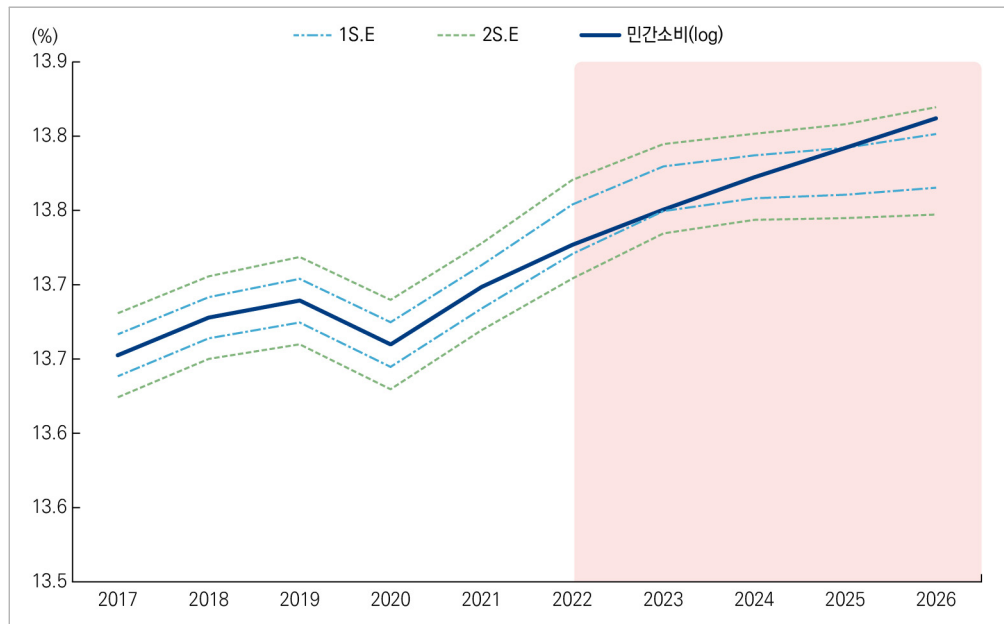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80만 명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2022년~2026년 실질 임금상승률은 1%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어서 소득여건이 지난 5년(2017~2021년, 2.1%)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물가도 과거 5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은 민간소비에 대한 전망 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소비 예측치는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 및 정성적 요인을 반영하여 95% 신뢰구간 내에서 조정하였다.

[그림 II-20] 중기 민간소비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장 정부소비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정부소비는 전년(5.3% 전망)보다 1.3%p 낮은 4.0%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5.6	5.2	5.4	5.3	4.0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의무지출 비중 확대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구조 조정
○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 추세 회복	○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상승폭 확대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는 제도부문 중 일반정부로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최종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집합서비스와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집합서비스지출은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행하는 지출이다. 개별 소비지출은 의료, 보건, 교육 등과 같은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를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다.

국민계정에서의 정부소비는 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정부의 총산출에서 정부가 산업이나 가계에 판매한 상품 및 비상품 판매수입을 제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추계된다.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text{정부소비} = \text{총산출(부가가치+중간소비)} - \text{상품·비상품 판매수입} \\ + \text{사회보장현물수혜}$$

총산출은 기간 중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로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이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를 더하여 구한다.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 물건비성 지출의 합이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가계에 현물 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다.

[표 II-4]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 주요 항목(2015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

- 직업훈련비
- 국공립초중고 무상급식
- 국공립대 국가장학금
- 보육료
-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 사립대 국가장학금
- 각종 바우처(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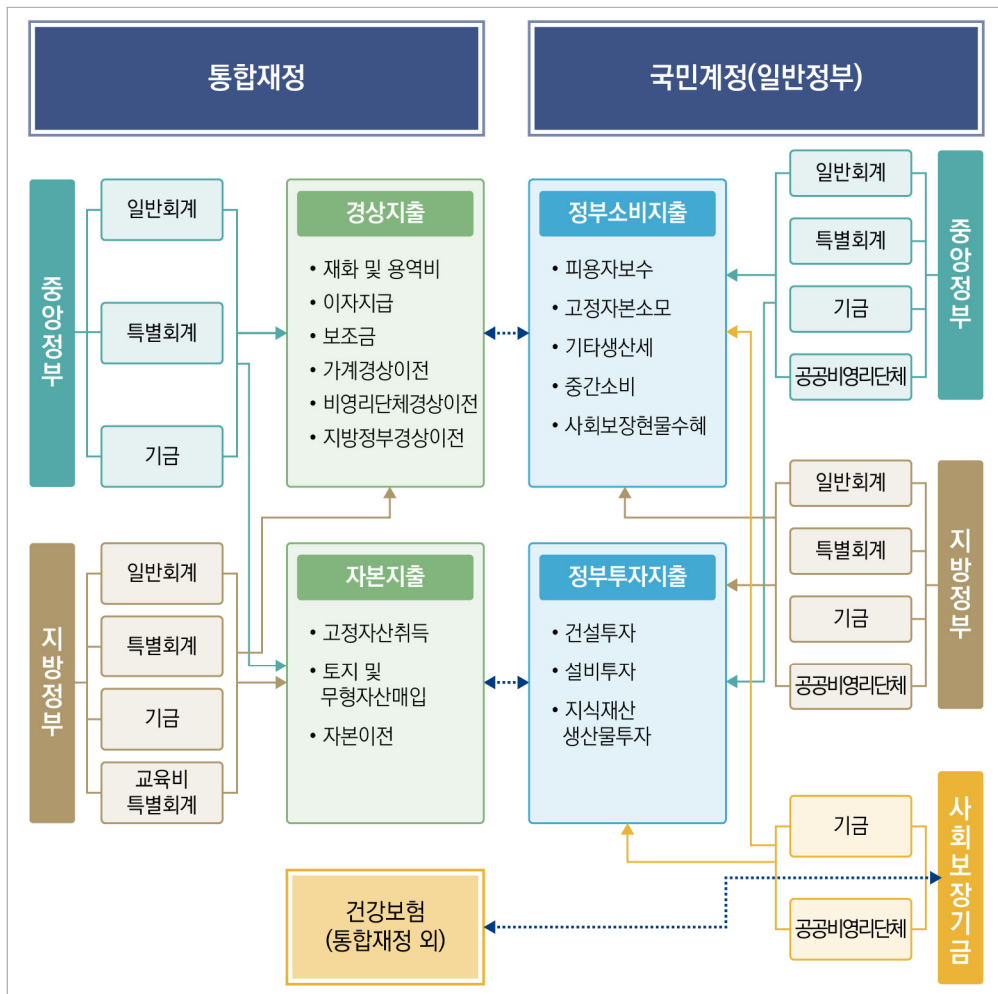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아래 [그림 II-21]은 통합재정지출 항목과 국민계정 상 일반정부 지출 항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재정지출 항목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화 및 용역비, 또는 정부가 가계나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현물성 이전지출은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지출로 계상된다. 그러나 가계나 비영리단체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상이전지출은 정부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편성되어 다른 사회보험²⁴⁾과 달리 국가 재정 외로 운용되지만,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국고지원금(일반회계+건강증진기

24) 통합재정의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6개이다.

금)과 국가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건강보험의 의무지출 항목이며, 국민계정 상에서는 일반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정부소비에 계상된다. 다른 예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통합재정 상 총지출 항목 중 경상이전지출이지만, 국민계정 상에서는 일반정부의 현금성 기타이전지출 항목으로 정부소비에 계상되지 않는다. 반면 방역보강을 위한 지출은 정부의 보건서비스 생산을 위한 지출로 정부소비에 계상된다.

[그림 11-21] 통합재정의 지출과 국민계정 일반정부의 지출



자료: 국회예산정책

[표 11-5]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과 국민계정 정부소비의 주요 항목별 추이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간 평균 (*17~21)
통합재정 총지출		6.1	7.1	12.1	12.2	9.8	9.5
○ 경상지출		7.3	8.3	7.5	17.6	10.3	10.2
- 재화 및 용역비		3.7	5.8	-15.8	32.0	10.9	7.3
- 보조금		-2.6	33.6	38.8	-13.7	8.3	12.9
- 가계경상이전		6.6	8.6	9.3	17.3	7.9	9.9
- 비영리단체경상이전		1.2	6.5	11.5	39.1	19.7	15.6
- 지방정부경상이전		13.6	11.0	16.9	6.7	8.3	11.3
○ 자본지출		-5.1	-4.9	68.5	-29.7	2.8	6.3
국민계정 명목정부소비		6.7	7.6	7.9	6.5	7.5	7.2
지출 형태	개별소비	6.2	9.0	9.0	5.9	-	7.5
	집합소비	7.3	6.0	6.5	7.3	-	6.8
항 목 별	피용자보수	5.6	6.7	5.9	4.8	-	5.7
	고정자본소모	6.3	5.6	6.5	4.7	-	5.8
	중간소비	3.3	3.4	5.8	4.7	-	4.3
	사회보장현물수혜	8.0	11.6	10.0	5.4	-	8.8
실질정부소비		3.9	5.3	6.4	5.1	5.6	5.3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2.7	2.2	1.4	1.4	1.7	1.9

주: 지출형태별, 부문별 정부소비의 기간평균은 2017~2020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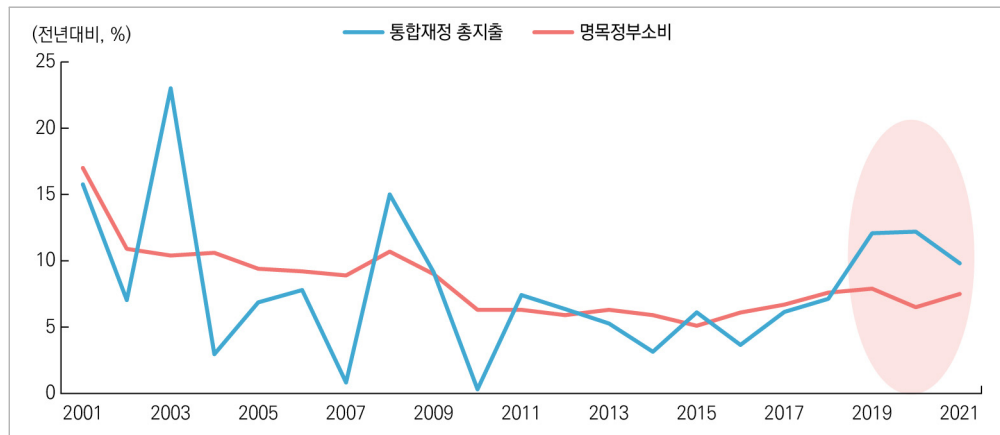
최근 2019~2021년 기간 중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1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동기간 명목정부소비는 연평균 7.3% 증가하여 통합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3년간에 나타났던 명목정부소비와 통합재정 총지출 증가율 간의 격차는 2019년과 2020~2012년 기간으로 나누어 그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2019년의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은 436.7조원으로 2018년 389.6조원에서 47.1조원(12.1%) 급증하였다. 이는 주로 지방정부 경상이전과 고정자산 취득 등 정부투자와 관련된 자본지출이 전년대비 각각 24.1조원(16.9%), 20.2조원(68.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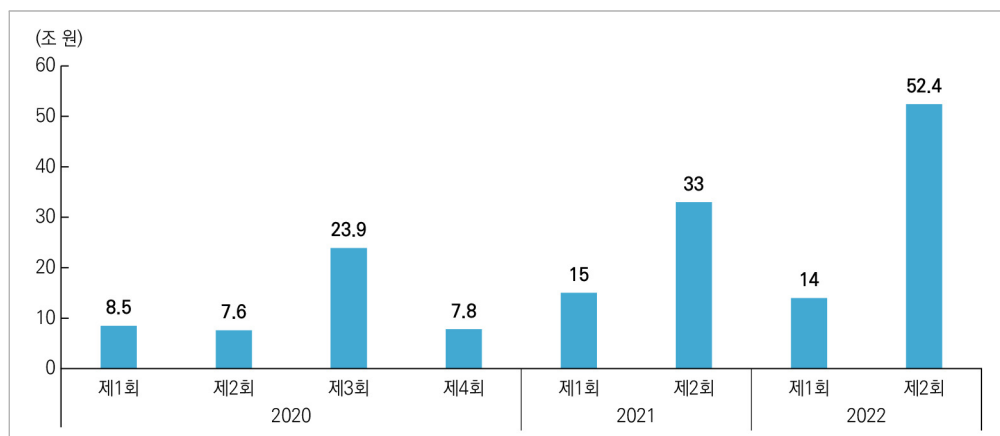
2020년과 2021년의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은 490.0조원과 538.0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3조원(12.2%), 48.1조원(9.8%) 급증하였다. 동기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6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세출이 동기간 95.8조(2020년 47.8조원, 2021년 48.0조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추경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등 정부소비와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통합재정 총지출 항목 중 비영리단체 경상이전은 2020년 22.4조원(39.1%) 2021년 15.6조원(19.7%) 증가하였고, 가계 경상이전은 동기간 각각 14.4조원(17.3%), 7.7조원(7.9%) 증가하였다.

[그림 11-22] 명목정부소비와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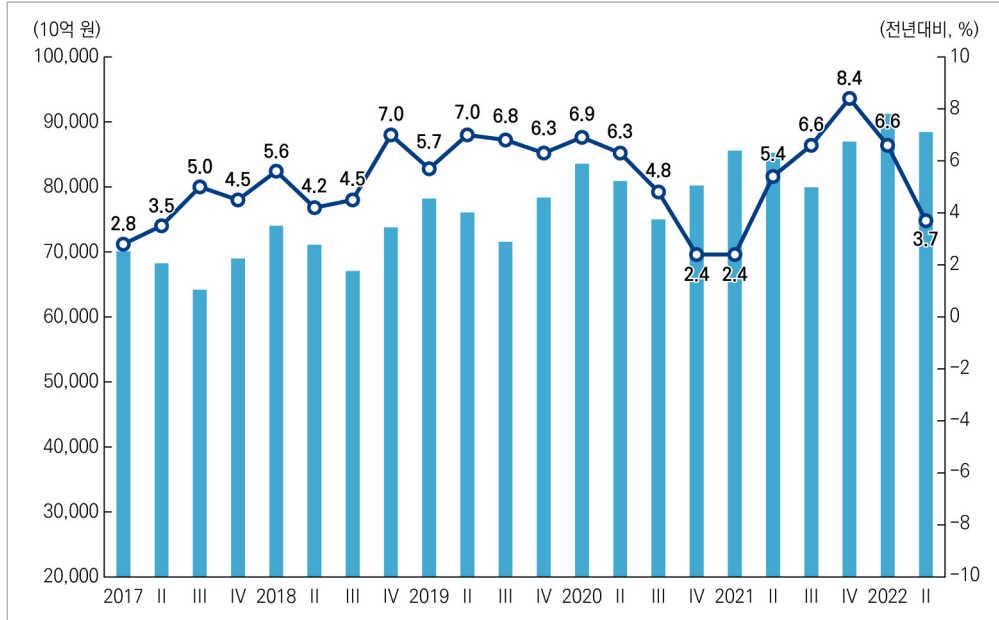
[그림 11-23] 2020~2022년도 추경안의 세출증액 규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8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2022년 들어 상반기 중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다. 하반기 중 정부소비는 5.4% 증가하여, 2022년 중 정부소비는 5.3%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II-24] 정부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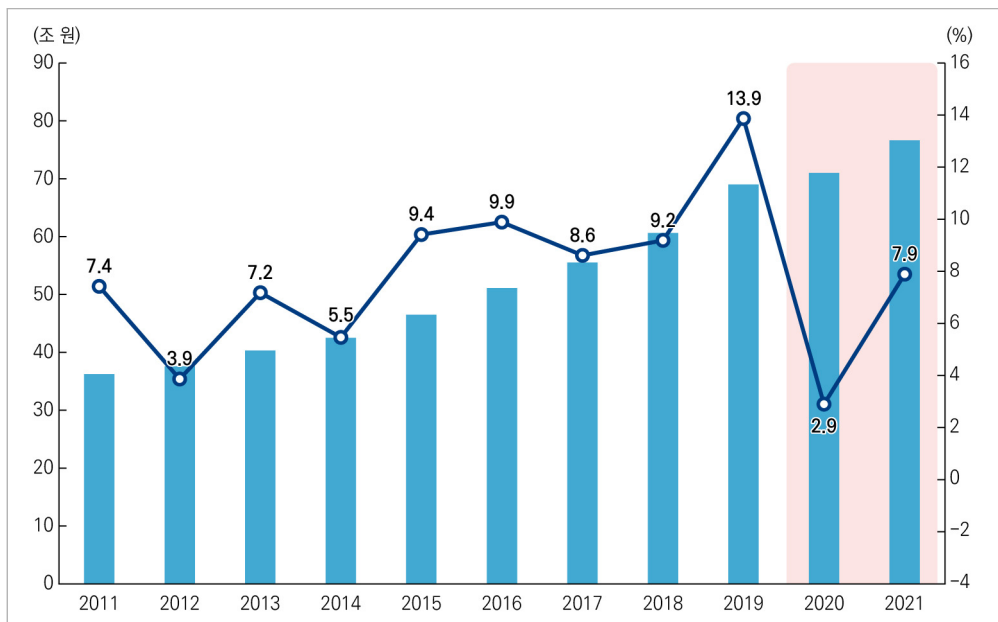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3년 중 정부소비는 4.0% 증가하여 2022년(5.3%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명목정부소비는 전년대비 7.5% 증가하겠지만 정부소비디플레이터가 3.4% 상승하며 실질정부소비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23년 명목정부소비는 2022년(9.7%)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2023년에도 7.5%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2023년 639.0조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명목정부소비는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와 높은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에 기인하여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항목의 증가는 관련된 정부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9.9%에서 2023년 5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주로 재량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회복되는 점도 정부소비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소비의 주요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인 건강보험 급여비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견실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76.6조원으로 전체 사회보장현물수혜 107.8조원의 71.1%이고, 명목정부소비(376.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5~2019년 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69.0조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가계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위축되며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71.0조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치며 2020년 정부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⁵⁾ 2021년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년대비 7.9%(76.6조원) 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추세보다 낮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공건강보험공단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84.0조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1-25]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추이



자료: 건강보험공단

25)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대응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하여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2022년(4.2% 전망)에 이어 2023년에도 3.4%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 복지, 행정, 국방 등 정부서비스 생산을 위한 피용자보수, 중간소비, 사회보장현물수혜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면, 명목정부소비를 실질화한 실질정부소비는 4.0% 늘어, 2022년(5.3%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1.3%p 둔화될 전망이다.

[표 II-6] 정부의 2023년 재정지출 계획

	'22년*		'23년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607.7	679.5	639.0
(증가율)	8.9	21.8	5.2
-의무지출	303.2	329.7	341.8
(비중)	49.9	48.5	53.5
-재량지출	304.5	349.8	297.3
(비중)	50.1	51.5	46.5

주: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2차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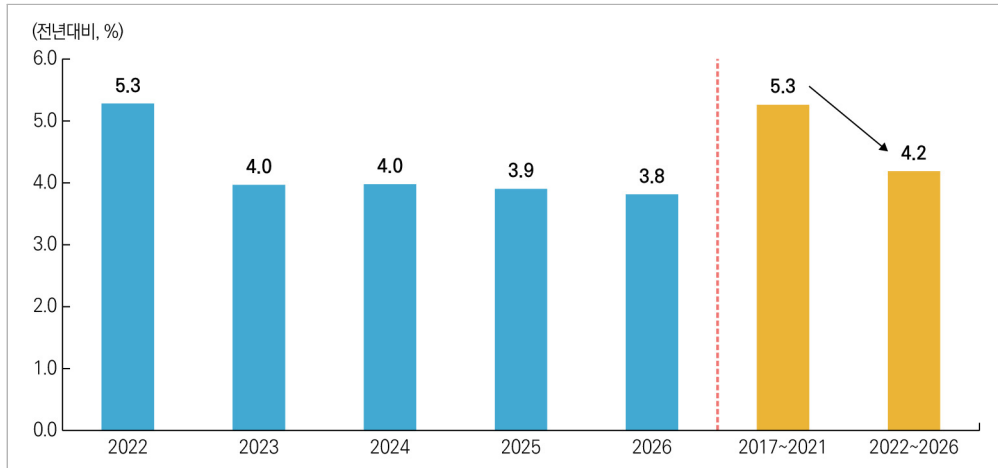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²⁶⁾

- 2022~2026년 중 정부소비는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2017~2021년)에 비해 증가세가 연평균 1.1%p 둔화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5.3	4.0	4.0	3.9	3.8	5.3	4.2

[그림 II-26] 중기 정부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소비는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 경기변동과의 실증적 관계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출 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26) 이 자료가 정부 재정지출이 정부소비, 정부투자,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승수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의무 지출 및 재량지출 비중과 재정지출 운용 방향, 재정지출 구조조정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주요 재정지출 항목이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소비 전망은 정부의 의무지출, 혹은 경상지출과 정부소비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전망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계열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정부의 관련 변수 전망치 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합재정 상 중앙정부 총지출과 정부소비와의 관계를 추정하여 명목정부소비를 전망한 후,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전망치로 실질화하는 방법으로 정부소비를 전망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기준 통합재정 상 중앙정부의 총지출은 639.0조원이고,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보면, 의무지출은 2023년도 예산안 기준 341.8조원으로 총지출에서 5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7]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조원, %)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4.6
(증가율)	8.9	21.8	5.2	4.8	4.4	4.2	
-의무지출	303.2	329.7	341.8	361.8	382.5	405.1	7.5
(비중)	49.9	48.5	53.5	54.0	54.7	55.6	
-재량지출	304.5	349.8	297.3	308.0	316.8	323.6	1.5
(비중)	50.1	51.5	46.5	46.0	45.3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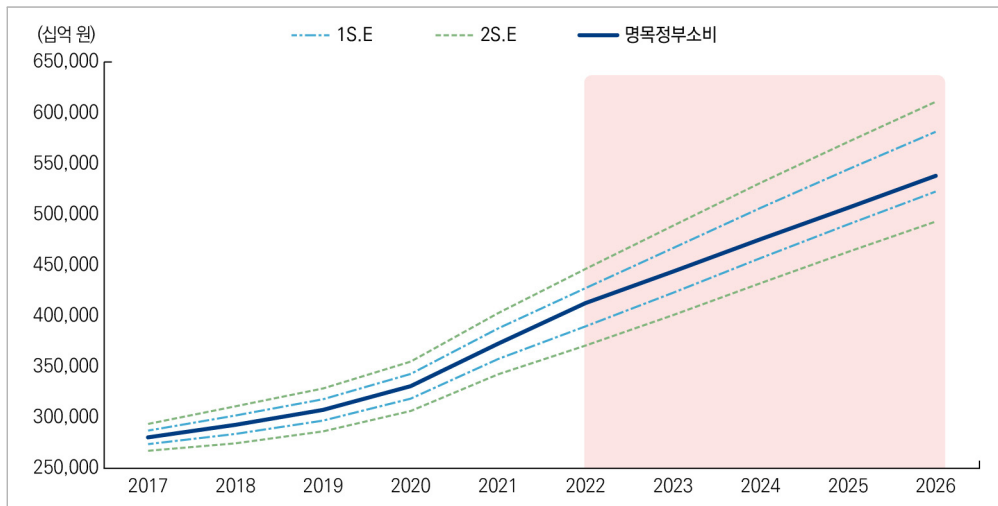
주: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2차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8.

아래 [그림 II-27]은 명목정부소비에 대한 실제 예측치와 전망 모형 상의 신뢰구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명목정부소비 전망은 명목정부소비/GDP 비중이 통합재정 총지출/GDP 비중, 경기적 요인을 나타내는 실질GDP갭과 가지고 있는 통계적 관계를 추정한 후, 이들 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활용하였다. 실질GDP갭은 실질GDP와 잠재GDP 전망 결과에서 나온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모

형 추정 결과 명목정부소비/GDP는 총지출/GDP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정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GDP갭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부소비가 통합재정상 총지출, 특히 경상지출(재화 및 용역비, 가계 및 지방정부 경상이전)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실질GDP갭이 음(-)인 경기수축기에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혹은 정부의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정부소비/GDP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모형에서 예측한 명목정부소비는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등의 가계경상이전이 예외적으로 많았던 기간이었던 점과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고려하여 연평균 0.5%p 하향 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향후 5년 기간 중 명목정부소비는 연평균 7.4% 증가하여 이전 5년(7.2%)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운용 상에서 정부소비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전망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통합재정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는 사회보장현물수혜 증가로 시현되며 명목정부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²⁷⁾

[그림 II-27] 중기 명목정부소비 전망치와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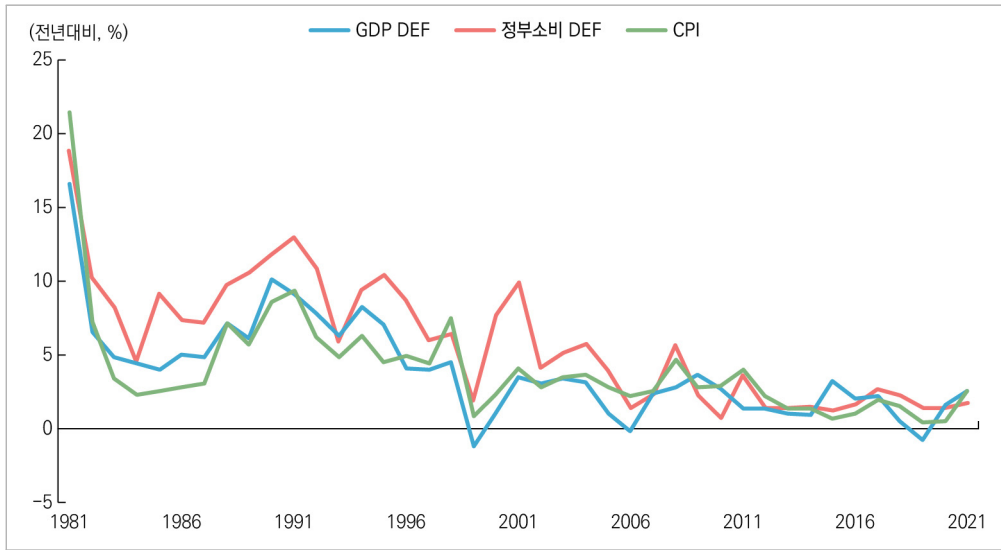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7) 「20211~2030년 NABO 중기 재정전망」(2021. 10)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1년 10.8조원에서 2030년 19.8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정부소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소비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5년 기간 중 정부디플레이터 상승률 예측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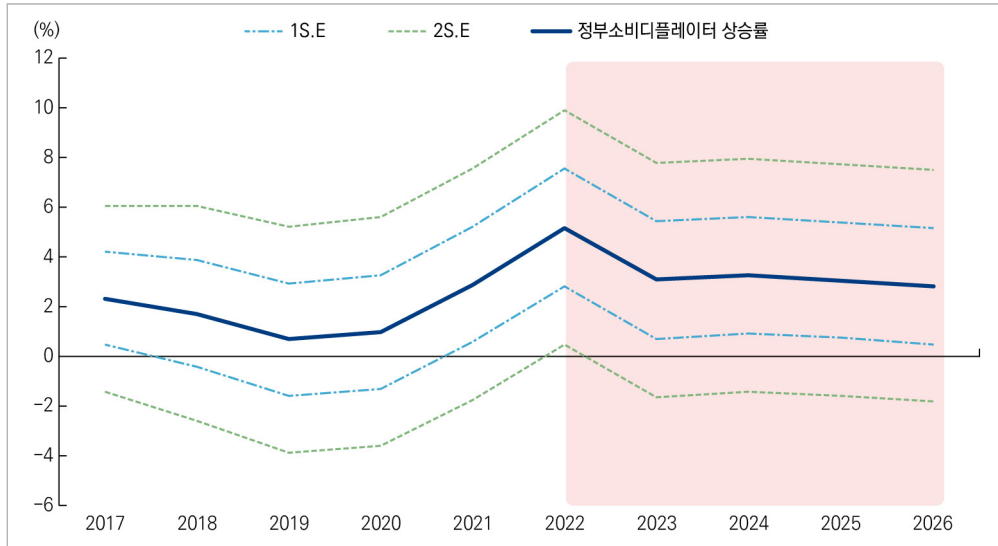
[그림 II-28] 정부소비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다음 [그림 II-29]는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실제 예측치와 전망 모형 상의 신뢰구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향후 5년 중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3.1%로 이전 5년(연평균 1.9%)에 비해 연평균 1.2%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29] 중기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전망치와 신뢰구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정부소비와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전망을 이용하여 예측한 실질정부소비는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하여 이전 5년(연평균 5.3%)에 비해 연평균 1.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명목정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7.4%로 이전 5년(연평균 7.2%)에 비해 소폭 확대되지만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은 동기간 연평균 3.1%로 이전 5년(연평균 1.9%)에 비해 연평균 1.2%p 상승하며 실질정부소비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 중기 정부소비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17~'21	'22~'26
명목정부소비	9.7	7.5	7.2	6.5	6.2	7.2	7.4
정부소비 디플레이터	4.2	3.4	3.1	2.5	2.3	1.9	3.1
실질정부소비	5.3	4.0	4.0	3.9	3.8	5.3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4장 건설투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건설투자는 전년(-2.9% 전망)보다 3.3%p 높은 0.4%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연간 ^f	연간 ^f
-1.6	-4.5	-1.6	-2.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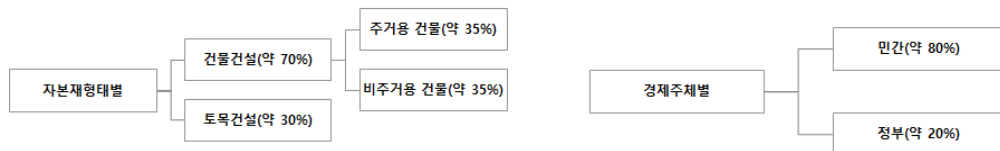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건설자재 수급 차질 완화	○ 자금조달 여건 악화
○ 3기 신도시 사업	○ 투자 불확실성 확대
	○ SOC 예산 감소

2022년 상반기 중 건설투자²⁸⁾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다. 특히 1/4분기에는 증가율이 -5.5%를 기록하는 등 크게 부진 했는데(성장기여도 -0.9%p) 이는 안전관리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해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자재 가격 상승 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 2/4분 기에도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3.7%).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56)

28) 건설투자는 자본재형태와 주체별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안은 건설투자에서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 II-9] 2022년 상반기 건설투자 주요 지표

(전년동기간대비, %)

구분		동행지표		선행지표
		건설투자 ¹⁾	건설기성 ²⁾	건설수주(경상)
발주자별	민간	-3.2	-	20.7
	정부(공공)	-10.0	-	7.1
형태(공종)별	건물(건축)	-2.3	2.3	13.9
	토목	-9.8	-4.9	35.1
전체		-4.5	0.4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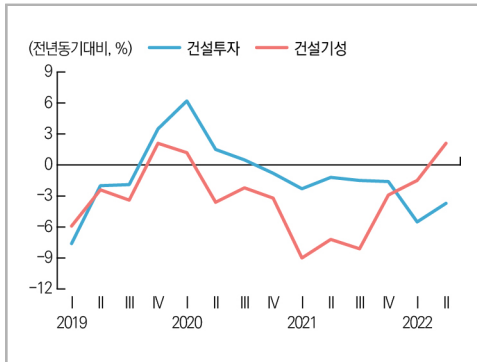
주: 1)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산출액 + 부대비용 - 재고증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전수추계

2) 통계청의 건설기성(= 산출액 + 매출VAT)은 상위 50%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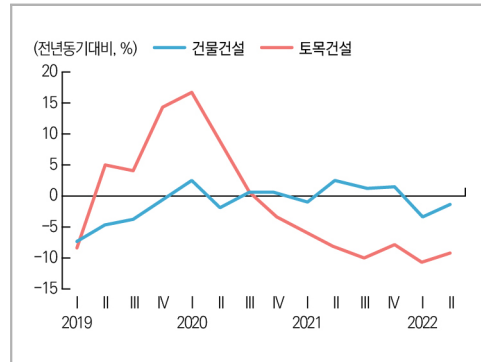
토목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는 상반기 크게 부진했다(9.8% 감소). 건물건설은 2021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상반기 2.3% 감소로 전환되었다(주거용 -3.2%, 비주거용 -1.4%). 주거용 건설투자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이 지연되면서 감소하였다.

[그림 II-30] 건설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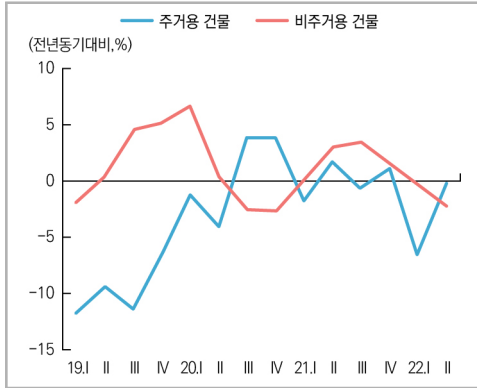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II-31] 공종별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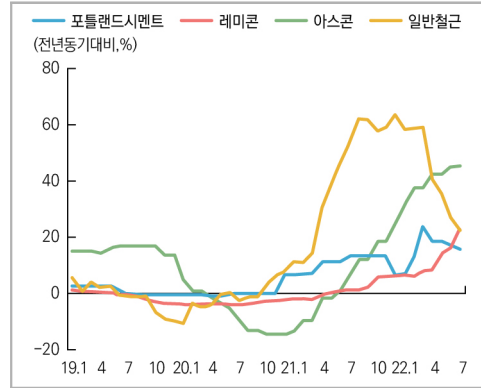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32] 건물건설 투자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33] 주요 건설자재 가격



자료: 통계청

2022년 건설투자는 하반기 중 1.5%, 연간 전체로는 2.9%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 둔화, 상업용 건물건설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건설자재 가격²⁹⁾은 철근가격을 중심으로 공급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³⁰⁾

공종별로 나누어 보면 건물건설은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물건설은 하반기에도 부진이 계속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주택 인허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 둔화 신호로 해석된다.³¹⁾ 또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였다.

[표 11-10] 1~7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5년대비	10년대비
인허가(A)	277,354호	295,855호	6.70%	4.40%	-0.7%
착공(B)	310,937호	223,082호	-28.3%	-17.2%	-19.3%
인허가대비 착공비율(B/A)	112.1%	75.4%	-	-	-

자료: 국토교통부

29)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 철근 등 금속제품이 약 20% 이상, 레미콘과 콘크리트가 약 15% 이상을 차지한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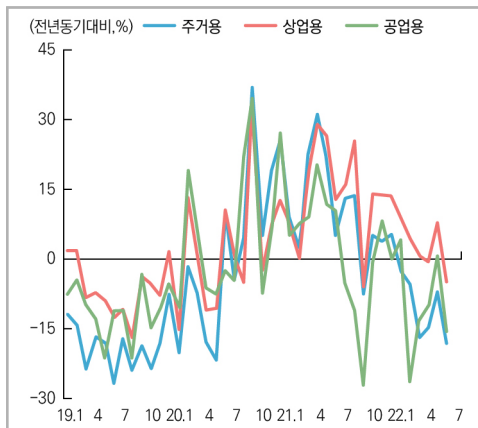
30) 다만 레미콘, 시멘트 등을 공급하는 양회사들은 2022년 2월 15~18% 가격을 인상했으며, 9월에도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31) 건설활동의 흐름에 따라 인허가 이후 착공이 이루어진다. 통상 인허가 이후 착공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허가와 착공의 시차를 단축하려는 유인이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침체되거나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인허가 이후 착공을 지연시키는 건설현장이 증가한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상업용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상업용 건물건설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업용 건물건설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설비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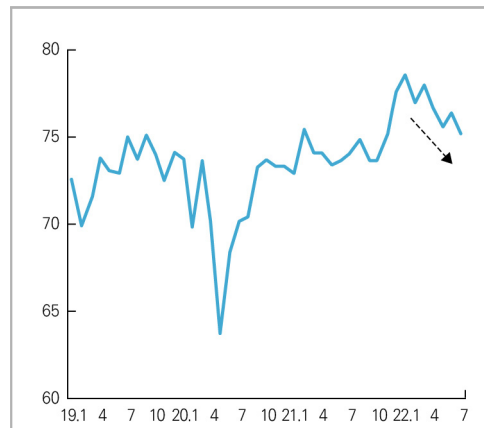
토목건설은 정부부문 SOC 예산이 소폭 늘어났으나 건설비용이 높아져 부진이 지속될 예정이다.

[그림 II-34] 건축물 착공현황



자료: 통계청

[그림 II-35] 제조업 가동률



자료: 통계청

2023년 중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4%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의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방요인으로는 건설자재 공급 차질 완화와 3기 신도시 사업 착공을 꼽을 수 있다. 하방요인으로는 자금조달 여건의 악화, 투자 불확실성 고조, SOC 예산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금리인상이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제약요인이 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택가격 하락 등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투자 유인은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설과 관련이 깊은 정부부문 SOC 예산은 2023년 축소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2023년 중 건물건설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토목건설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용 건물건설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회복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8년 3기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지구는 2022년 5월 이미 착공되었으며,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는 2023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착공 이후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점(2026년 이후)까지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³²⁾

다만, 2022년 들어 주택수요가 감소하면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미분양 주택은 2022년 1월 21,727호에서 7월 31,284호로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전망 CSI가 가파르게 하락하고(1월 100 → 7월 76) 주택 매매거래가 감소³³⁾하는 등 부동산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2023년 증가가 정체될 예정이다. 상업용과 공업용 건물건설 모두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II-11] 신도시 개발 계획

구분	지역	추진배경
1기 신도시 (50.1km ²) (29.2만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구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주택난 심화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
2기 신도시 (139.0km ²) (66.6만호)	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수원광교, 양주옥정·회천, 평택고덕, 성남위례, 인천검단, 아산탕정·배방, 대전도안 등 12개 지구	1995년 이후 난개발 문제 부상과 IMF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규모 계획 도시의 필요성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며 조성
3기 신도시 (55.1km ²) (31.6만호)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9개 지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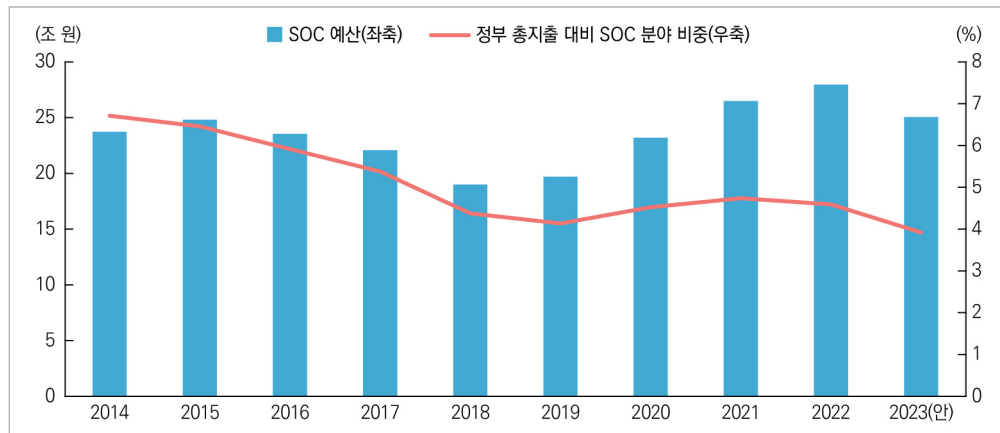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32) 신도시 개발이 건설투자로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기조 변화, 토지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33)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2년 7월 누계 349,860건으로 전년 동기(648,260건) 대비 46.0% 감소하였다.

토목건설은 2023년에도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 기조가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되며 SOC 예산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2022년(28.0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10.2% 감소한 25.1조원(예산안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발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1-36] 2023년 SOC 예산 투입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제2절 중기 전망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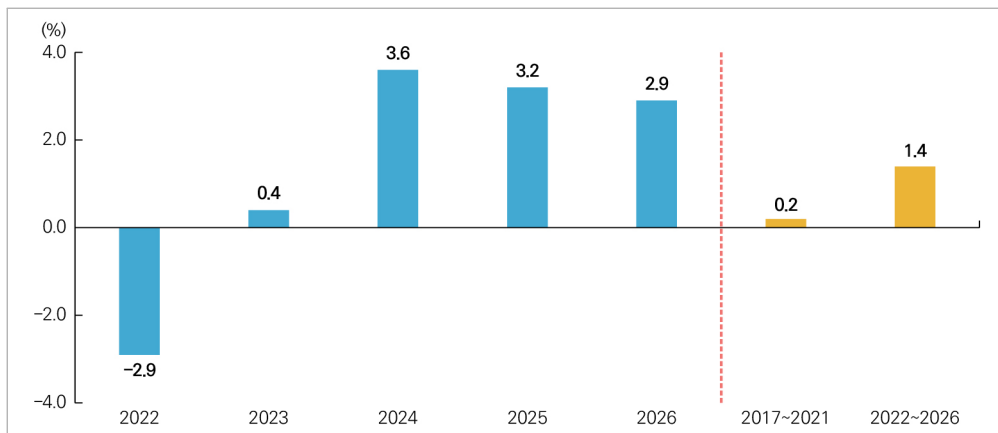
- 2022~2026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4% 증가
 - 지난 5년(2017~2021년)에 비해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2.9	0.4	3.6	3.2	2.9	0.2	1.4

2022~2026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2017~2021년)은 건설은 부진이 지속되며 연평균 0.2% 증가에 그쳤으나, 2023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향후 5년(2022~2026년)은 증가율이 지난 5년보다 1%p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침체국면을 지속하였으나 2023년 증가로 전환되고 2024년에는 제약요인 해소 및 정부의 공급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율이 3.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후 건설투자는 기저효과와 경제 성장 둔화·경제발전단계 등 중기적 요인에 의해 점차 증가율이 낮아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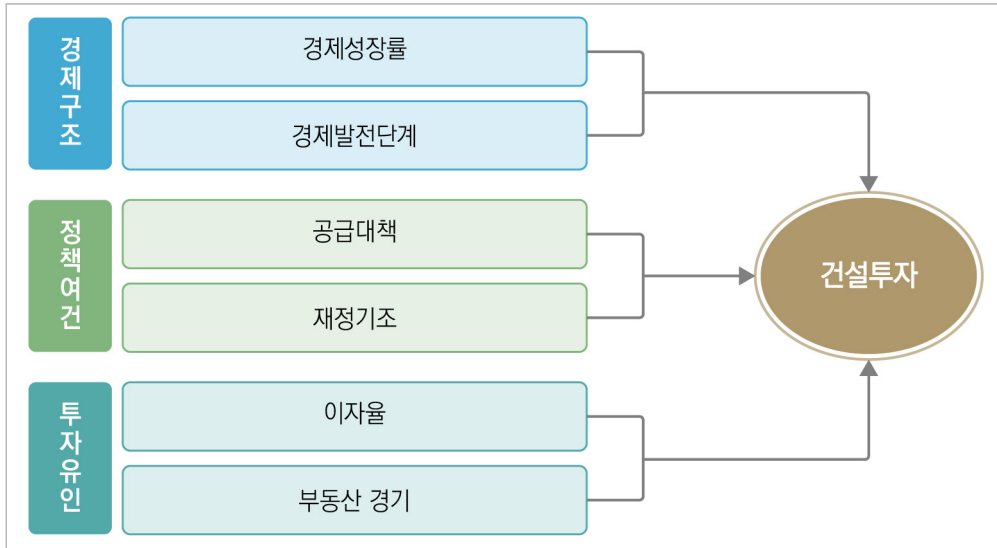
[그림 II-37] 중기 건설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4) 이 자료가 건설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지원대상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은 납품단가 연동제 등 건설 계약관련 입법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II-38] 건설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6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경제구조, 정책여건, 투자유인 등 세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위 그림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각 요인과 건설투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책여건을 보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SOC 예산 등이 건설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8월 16일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³⁵⁾을 통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주택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5년 대비 13만호 더 늘어난 것이다.

[표 II-12] 270만호 주택 공급계획(인허가 기준)

		'18~'22e (A)	'23e~'27e (B)						
				'23	'24	'25	'26	'27	증감(B-A)
합 계		257	270	47	54	56	56	57	+13
지역별	수도권	129	158	26	30	33	33	36	+29
	서울	32	50	8	11	10	11	11	18
	비수도권	128	112	21	24	23	23	21	-16
	광역시·자치시	48	52	9	11	11	11	9	4
	8개 道	80	60	12	12	12	12	12	-20

자료: 국토교통부

35) 관계부처합동(2022),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보도자료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재정 운용기조가 '확장운용'에서 '지출조정'으로 전환³⁶⁾되는 것은 건설투자의 하방요인이다. 총지출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6%에서 2026년에 3.6%로 하락이 예상된다. 2022년~2026년 중으로도 SOC 예산은 -1.8%(연평균) 감소할 전망이다.

[표 II-13]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 SOC 예산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6년 평균
총지출(조원)	607.7	639.0	669.7	699.2	728.6	-
- 증가율(%)	8.9	5.2	4.8	4.4	4.2	4.6
SOC(조원)	28.0	25.1	25.5	25.8	26.0	-
- 증가율(%)	5.5	-10.2	1.5	1.1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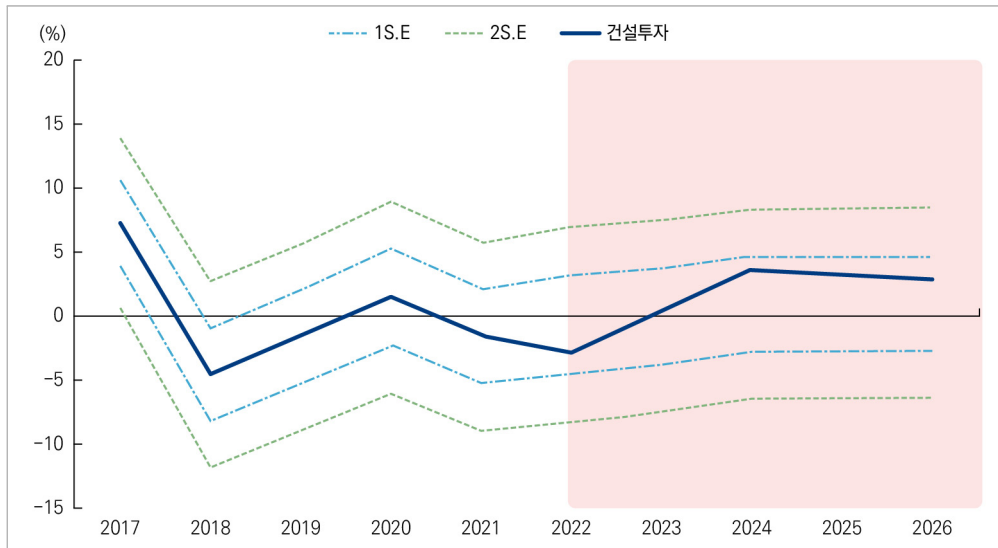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경제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 증가율도 2026년에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 U자 형태(Kuznets, 1961)를 보이거나,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Bon, 2000)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년까지 건설투자는 전체 투자의 6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비중이 46%까지 하락하였다. 한국은행(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설 자본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건설투자 규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건설투자 증가율은 앞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인을 살펴보면 중기에는 실질이자율이 이전 5년보다 낮아져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 시기와 강도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 경로도 영향을 받겠다.

36) 기획재정부(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주요내용」 보도자료

[그림 II-39] 중기 건설투자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6년 기간 중 건설투자는 NABO의 건설투자 모형을 통해 전망하였으며,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 및 정성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조정하였다. 위 그림은 건설투자에 대한 전망 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 설비투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설비투자는 전년(-4.9% 전망)보다 6.1%p 높은 1.2%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¹⁾	연간 ²⁾	연간 ³⁾
9.0	-6.4	-3.5	-4.9	1.2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친환경 관련 투자 수요 확대	○ 대내외 불확실성
○ 차세대 기술 투자 수요 확대	○ 반도체 업황 둔화
	○ 해외직접투자 규모 확대

2022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였다. 상반기 설비투자의 큰 감소세는 최근 2년(2020~2021 연평균 8.1%) 동안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하고 있다. 운송장비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2021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계류에서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2022년 들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표 II-14] 설비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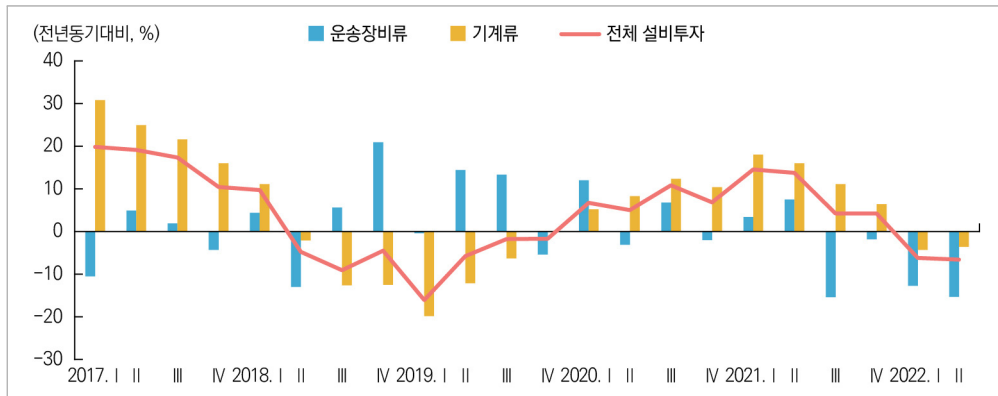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1/4	2/4	3/4	4/4	연간	1/4	2/4
설비투자	7.2	14.5	13.7	4.2	4.2	9.0	-6.2	-6.6
운송장비	2.6	3.4	7.5	-15.4	-1.8	-1.5	-12.7	-15.3
기계류	9.0	18.0	16.0	11.1	6.4	12.8	-4.3	-3.6

자료: 한국은행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그림 II-40]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는 2022년 하반기 중 3.5% 감소하면서 2022년 연간으로는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비용 증가를 들 수 있다.

먼저 올해 2월 발생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 확대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제조업 설비투자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³⁷⁾에서는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 둔화로³⁸⁾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15] 설비투자전망 BSI

	2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제조업	99	101	98	98	99	98	95	95
수출기업	104	107	103	103	104	103	99	97
내수기업	97	97	94	95	96	95	92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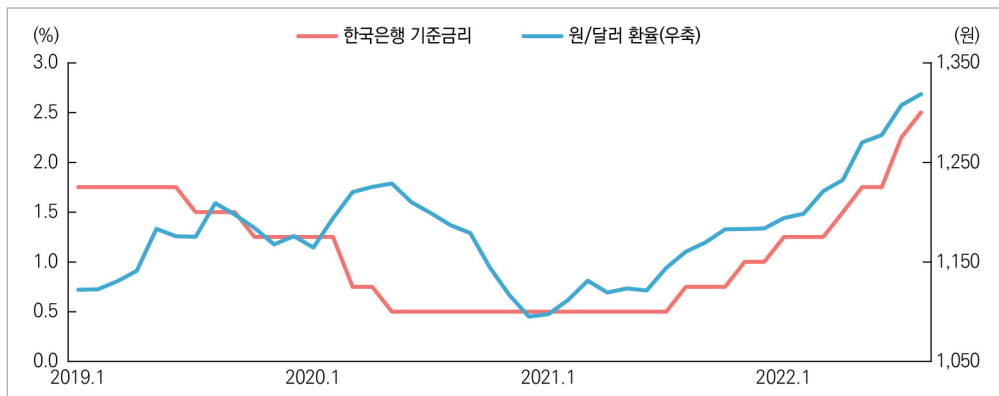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7) 「2021년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 한국산업은행, 2022.2.22.

38) DRAM 고정가격은 2022년 1월 3.41달러에서 2022년 7월에는 2.88달러로 15.5% 하락하였으며, NAND 고정가격은 2022년 1월 4.81달러에서 2022년 7월 4.49달러로 6.7%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또한 기업들의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22년 들어 5차례³⁹⁾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7차례⁴⁰⁾에 걸쳐 기준금리를 2.50%까지 인상하였다. 하반기에도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2022년 상반기 중 1,300원을 넘어섰으며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의 수입의존도는 40.0%를 기록⁴¹⁾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설비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며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1]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II-16] 기계류수입액 추이

(전년동월대비, %)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기계류	-4.6	3.9	-9.4	-17.1	4.4	-4.3	-7.5
반도체제조용장비	-34.3	-13.4	-29.0	-31.2	4.6	7.0	-12.9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외	12.8	12.4	0.1	-10.4	4.1	-8.2	-5.5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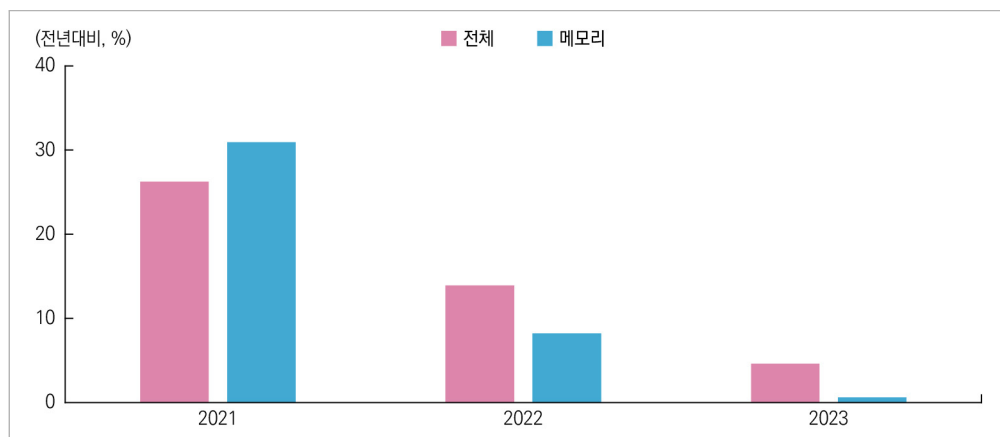
39) 2022.3월(0.25%→0.50%), 2022.5월(0.50%→1.00%), 2022.6월(1.00%→1.75%), 2022.7월(1.75%→2.50%), 9월(2.50%→3.25%)

40) 2021.8월(0.50%→0.75%), 2021.11월(0.75%→1.00%), 2022.1월(1.00%→1.25%), 2022.4월(1.25%→1.50%), 2022.5월(1.50%→1.75%), 2022.7월(1.75%→2.25%), 2022.8월(2.25%→2.50%)

41)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5호, 2022.1

2023년 중 설비투자는 1.2%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설비투자 전망치를 결정할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방요인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 둔화,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2023년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안정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ESG 경영 활성화에 따른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방요인으로는 세계 반도체 업황 악화,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전년대비 4.6% 성장하면서 지난 2년(2021~2022년) 평균 성장률인 20.1%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부터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점 또한 2023년 국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42]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WSTS(2022.8월)

[표 11-17]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시설투자 계획

기업	국가	내용	규모	계획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1,921억 달러	2024년 가동
SK하이닉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건설 등	150억 달러	2022년 발표
삼성SDI	말레이시아	원형 배터리 라인 증설	1.7조 원	2025년 완공
현대자동차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55억 달러	2025년 완공

자료: 언론기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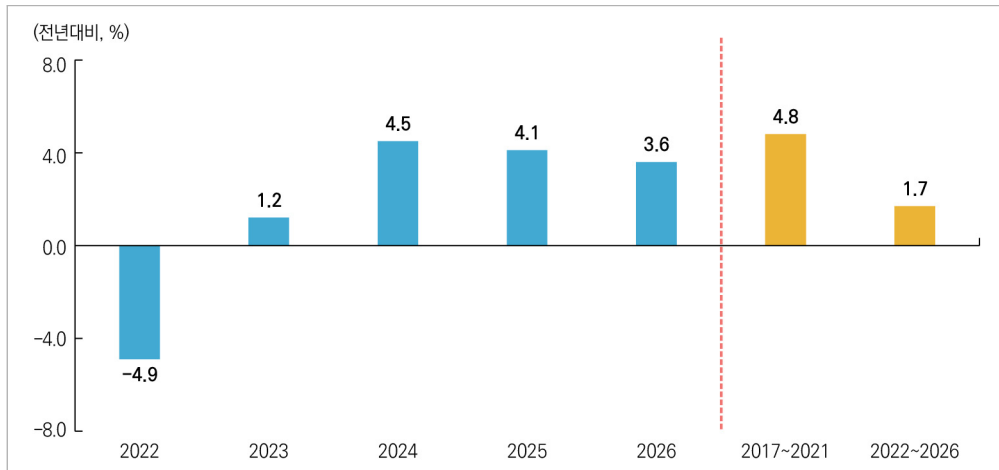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⁴²⁾

- 2022~2026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1.7% 증가
 - 지난 5년(2017~2021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4.9	1.2	4.5	4.1	3.6	4.8	1.7

[그림 II-43] 중기 설비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6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지난 5년(2017~2021 연평균 4.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전략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증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감소 등은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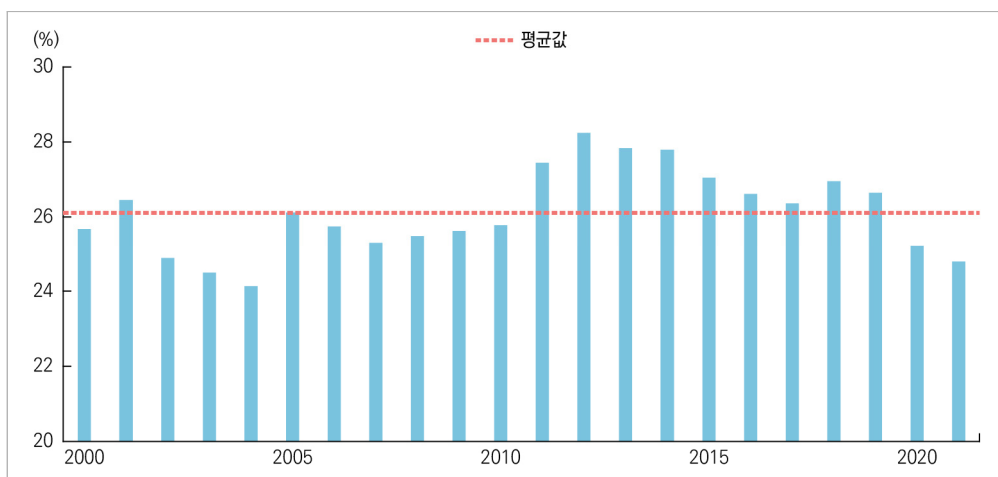
42) 이 자료는 설비투자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지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중기 성장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표 II-18]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추이

연도	금액(백만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2017	45,042	10.8
2018	51,631	14.6
2019	65,073	26.0
2020	57,299	-11.9
2021	76,446	3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II-44] 제조업/GDP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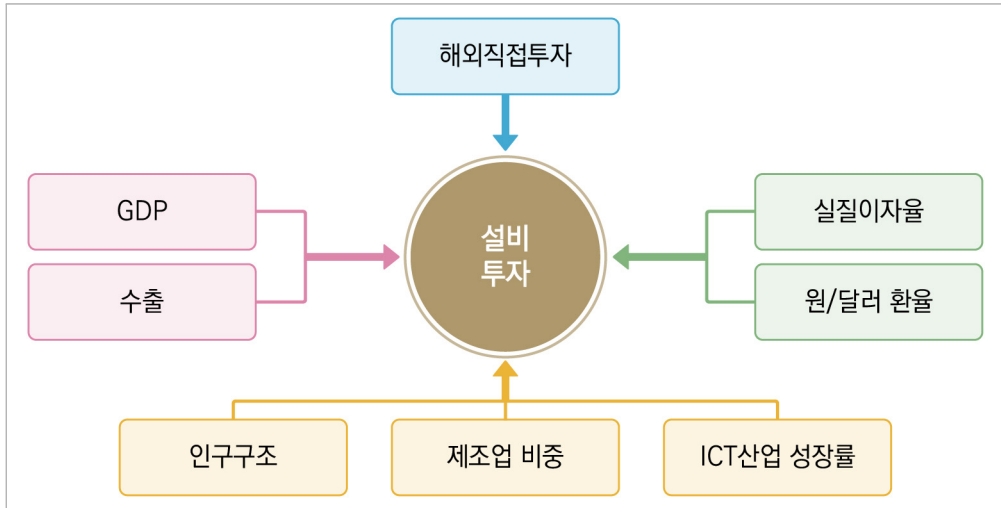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반면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생산시설 투자 수요 또한 중기 설비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래 [그림 II-45]는 중기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GDP, 수출 등의 수요요인은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실질이자율, 환율 등의 비용요인은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차산업과 연계된 ICT산업의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설비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생산 비중, 고령인구 비율, 해외직접투자 등의 구조적 요인들도 중기 설비투자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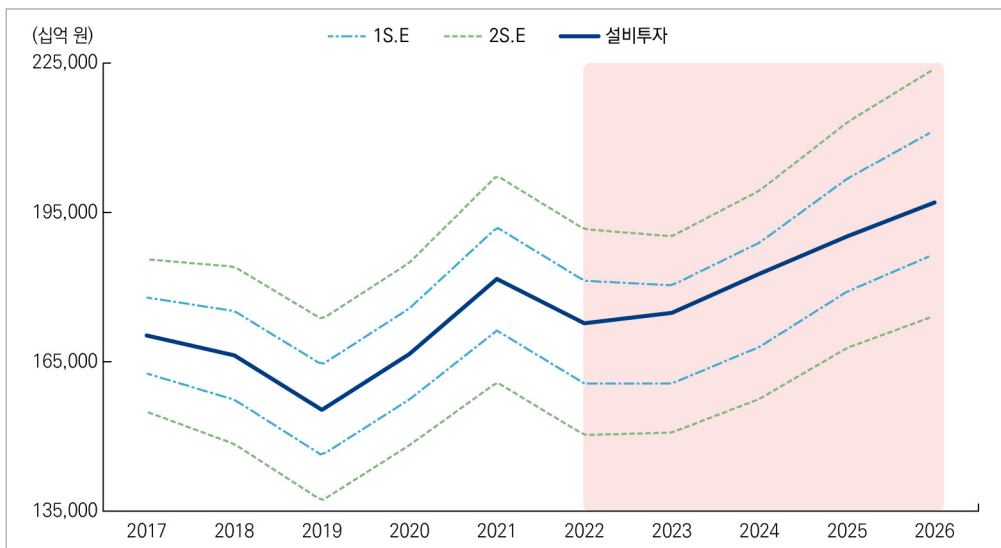
[그림 II-45] 설비투자과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 II-46]은 설비투자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설비투자는 과거 시계열 자료에서도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형에서 도출된 신뢰구간 역시 증기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II-46] 중기 설비투자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6장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4.3% 전망)보다 0.1%p 높은 4.4%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4.4	4.6	4.0	4.3	4.4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첨단산업분야 선제적 투자	○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 정부의 R&D 세제지원 확대	○ 기업 영업이익 감소
○ 문화·예술산업 업황 호조	

2022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에서 모두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다. 상반기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견조한 성장세는 반도체·전기차 등 신성장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수요 지속, 거리두기 완화와 문화·예술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타지식생산물투자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1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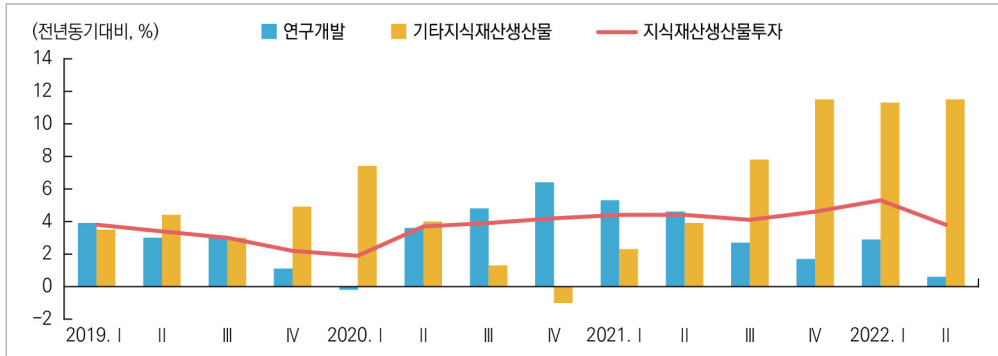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1/4	2/4	3/4	4/4	연간	1/4	2/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4	4.4	4.4	4.1	4.6	4.4	5.3	3.8
연구개발	3.7	5.3	4.6	2.7	1.7	3.5	2.9	0.6
기타지식재산생산물	2.7	2.3	3.9	7.8	11.5	6.6	11.3	11.5

자료: 한국은행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그림 II-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2년 하반기 중 4.0% 증가하면서 2022년 연간으로는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상방요인으로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수요 증가, 신산업 부문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수요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투자 둔화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중장기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 증대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관련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생산지표가 2022년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연구개발 및 SW개발 투자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부문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콘텐츠 부문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20] 산업별 생산지수

(전년동기대비, %)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정보통신업	7.0	6.6	5.7	7.4	9.7	6.8	5.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8	7.0	8.7	15.6	10.0	6.0	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3.1	1.2	1.3	4.5	0.3	4.3
연구개발업	8.1	10.4	7.1	2.5	5.9	3.0	7.1

자료: 통계청

정부의 R&D 세제지원도 2022년 중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세법」(2021.12월 국회 통과)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022.1월). 시행령 개정안에는 R&D 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신성장·원천기술 R&D투자에 탄소중립 분야 신설,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등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표 II-21] R&D투자 관련 세제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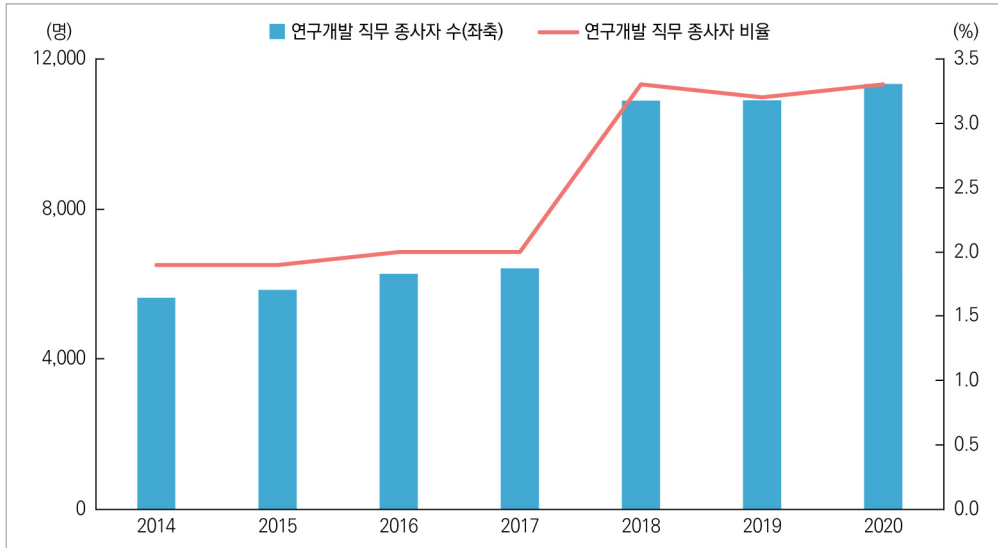
① R&D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R&D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배터리	상용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백신	개발·생산, 시험, 원·부자재		
②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탄소중립 분야 신설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지식재산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기분 3% 세액공제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으로 오락, 공연 등 문화산업 부문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⁴³⁾하면서 신규 콘텐츠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직무 종사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이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1.9%에서 2020년에는 3.3%로 증가하였다.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등 연구개발 관련 투자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3)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2019년 하반기)1,859억→(2022년 상반기)2,315억

[그림 II-48]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인력 추이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4% 증가할 전망이다. 비대면 IT서비스 수요 증가, 기업의 신규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의 요인은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023년 중 예정된 주요 OT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표 II-22] 국내 주요 OTT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

기업	내용
웨이브	2025년까지 자체 콘텐츠 제작에 1조원 투자 계획
티빙	2023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4,000억 원 투자 계획
CJ ENM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5조원 투자 계획
KT스튜디오지니	지식재산권(IP) 강화를 위해 180억원 규모 투자 계획

자료: 언론기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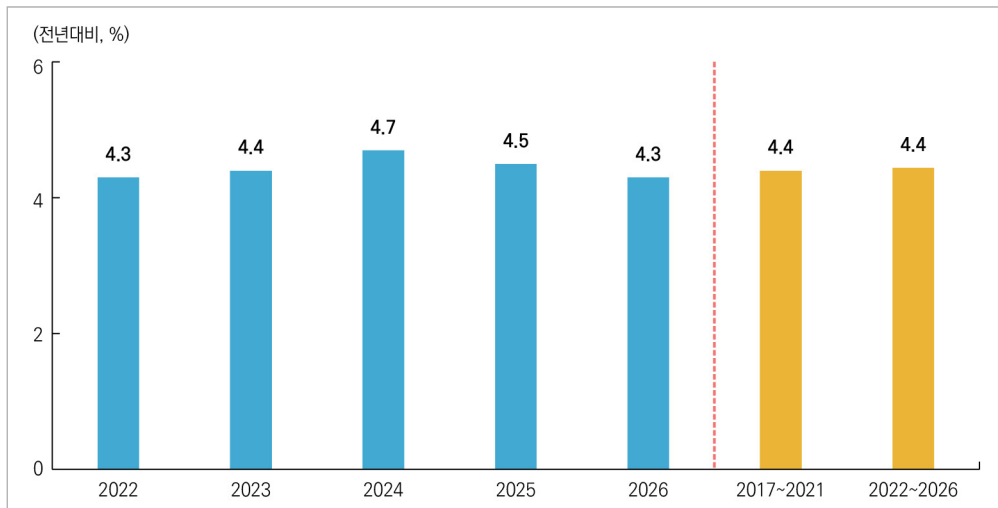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⁴⁴⁾

- 2022~2026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4.5% 증가
 - 지난 5년(2017~2021년) 대비 동일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4.3	4.4	4.7	4.5	4.3	4.4	4.4

[그림 II-49]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6년 기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4.4% 증가하면서 지난 5년(2017~2021 연평균 4.4%)과 같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는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나, 제조업 중심의 국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특성상 제조업 업황 둔화는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제약하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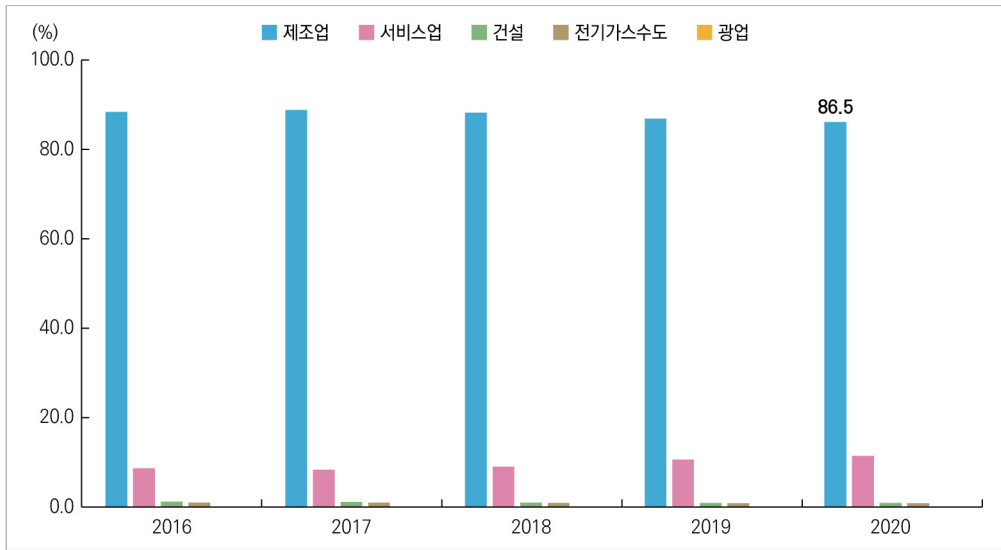
44) 이 전망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R&D 세액공제율 확대,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CT산업 성장, 콘텐츠 시장 확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중기 성장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표 II-23] 세계 및 국내 패키지SW 시장 규모 전망

연도	국내 패키지SW 시장 성장률	세계 패키지SW 시장 성장률
2021 ^f	3.5	10.5
2022 ^f	5.3	9.3
2023 ^f	5.0	9.6
2024 ^f	4.9	10.3
2025 ^f	4.8	11.1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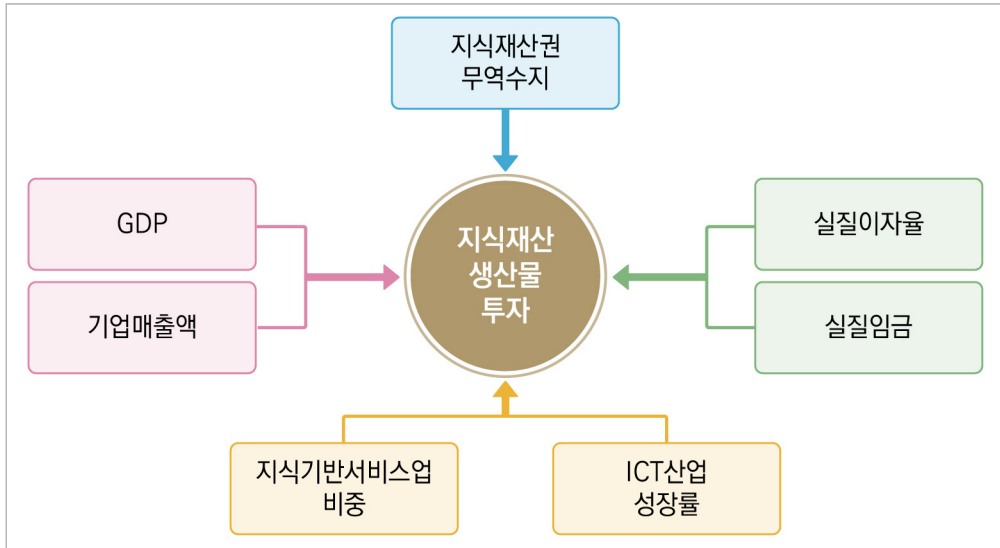
[그림 II-50]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ISTANS

다음 [그림 II-51]은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GDP, 기업매출액 등의 수요요인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실질이자율, 실질임금 등의 비용요인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CT산업 성장률 증가,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증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등의 요인들 역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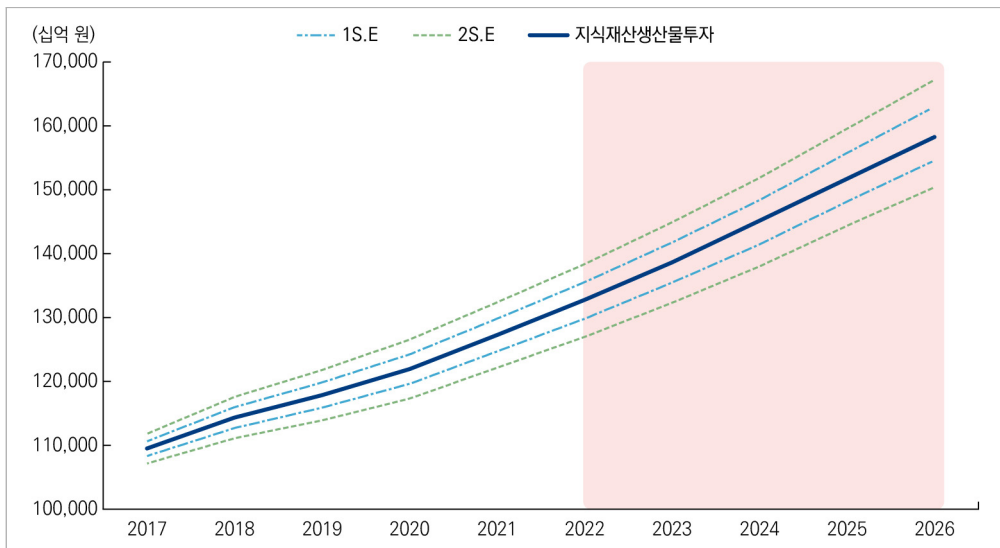
[그림 II-51]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 II-52]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52] 중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7장 대외거래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총수출(국민계정)은 4.1%, 총수입(국민계정)은 6.1%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총수출	10.8	6.0	3.4	4.6	4.1
총수입	10.1	3.5	4.8	4.2	6.1

- 2023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 금액은 각각 0.5%, 1.1% 증가에 그칠 예상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수입 원자재가격 안정화	○ 세계경기 및 세계교역 둔화
○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	○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 가격 하락
	○ 국제유가 등 불안정 지속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2023년 4.1% 증가하여 전년(4.6% 예상)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국제기구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로 2022년 3.0%에 비하여 소폭 낮아질 전망이며, 세계교역량도 2023년 3.8%로 전년 4.1%에 비해 하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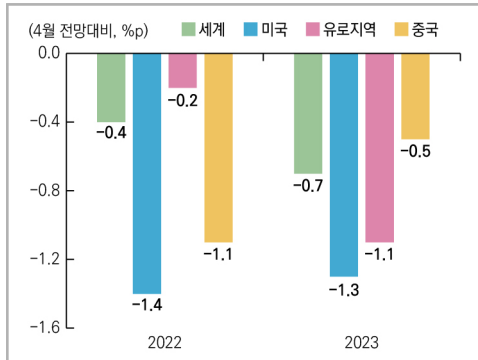
[표 II-24]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감률 전망(국민계정)

(전년대비 증감률, %)

	2021	2022	2023
총수출	10.8	4.6	4.1
총수입	10.1	4.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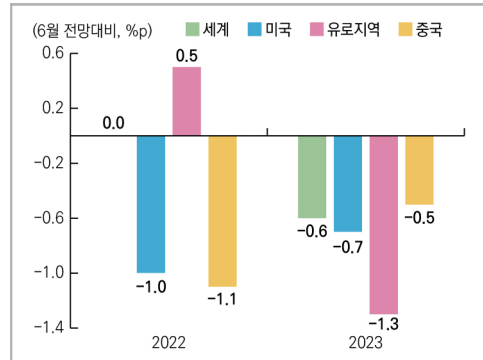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그림 11-53] IMF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



주: 2022년 4월 전망 대비 성장률 조정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7월)

[그림 11-54]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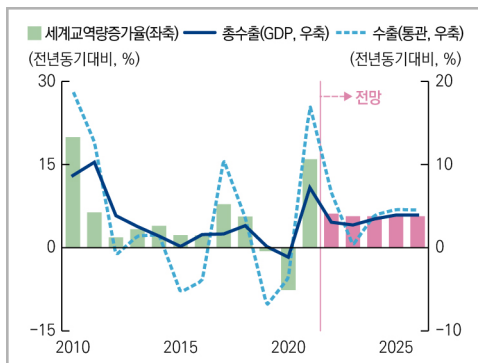


주: 2022년 6월 전망 대비 성장률 조정폭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2022.9월)

특히 2023년에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망의 하방 위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MF(2022년 7월)와 OECD(2022년 9월)도 최근 전망에서 주요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각각 4월 및 6월) 대비 큰 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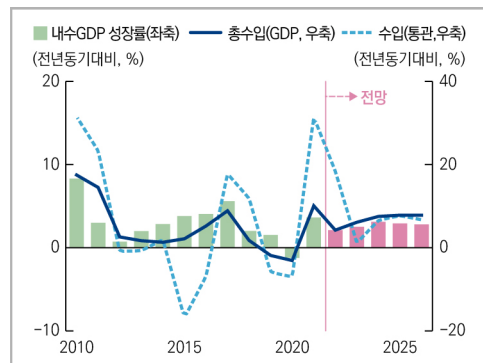
총수입(국민계정, 실질) 증가율은 2023년 6.1%로 전년(4.2%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소폭이나마 회복되겠고 원유 등 원자재가격도 하락하면서 수입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이다. EIA(미 에너지 정보청, 9월 기준) 등에서는 2023년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물, 금속 등 기타 원자재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림 11-55] 수출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1-56] 수입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은 2023년 0.5%, 1.1% 증가에 그쳐 전년에(9.9% 및 18.4% 예상) 비해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급과잉 지속으로 D램 등 반도체 가격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⁴⁵⁾, 원유 등 원자재가격도 하락할 예상이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은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경상수지는 320억 달러 흑자로 전년(350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둔화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다.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겠으나 여행수지는 해외여행객 수가 외국인 관광객 수보다 빨리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투자수입(이자 및 배당)이 줄어들면서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1.7%로 2022년(2.1% 예상)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다.

45) D램 고정가격은 2021년 7~9월 4.10달러에서 2022년 7월 2.8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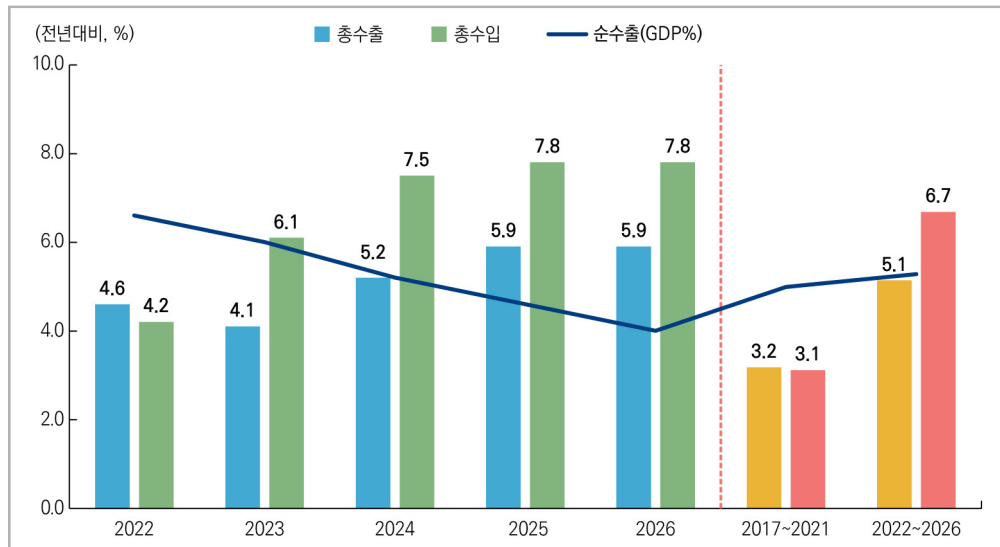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46)

- 2022~2026년 중 총수출은 연평균 5.1%, 총수입은 연평균 6.7% 증가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총수출	4.6	4.1	5.2	5.9	5.9	3.2	5.1
총수입	4.2	6.1	7.5	7.8	7.8	3.1	6.7
순수출 (GDP%)	6.6	6.0	5.2	4.6	4.0	5.0	5.3

[그림 II-57]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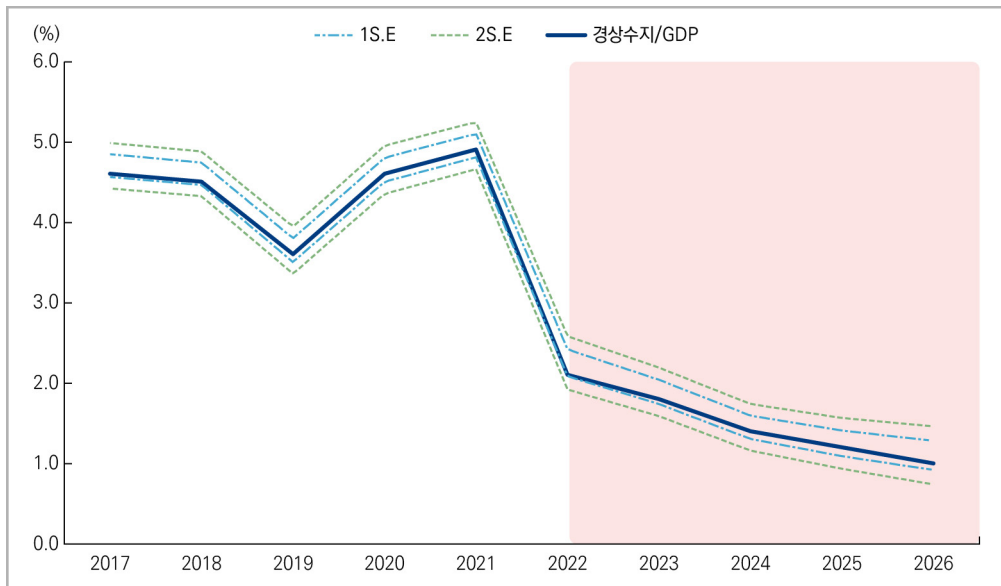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2~2026년 기간 중 총수출 및 총수입은 각각 연평균 5.1%, 6.7% 상승하여 지난 5년(2017~2021 총수출 연평균 3.2%, 총수입 3.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질GDP 대비 순수출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일 예정이다.

46) 이 전망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그림 II-59]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의 모형 예측치와 신뢰구간이다. 동 비율은 2022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대중무역 흑자기조 약화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로도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

[그림 II-59] 중기 경상수지/GDP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8장 소비자물가



제1절 2023년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전년(5.2% 전망)보다 1.9%p 하락한 3.3% 상승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연간 ^f
2.5	4.6	5.7	5.2	3.3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원/달러 환율 상승	○ 원/달러 환율 하락
○ 원자재 가격 상승	○ 원자재 가격 하락
○ 노동비용 상승	○ 국내외 경기 둔화

2022년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상승하였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 상승, 대면소비 증가에 따른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이 소비자물가의 높은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표 II-2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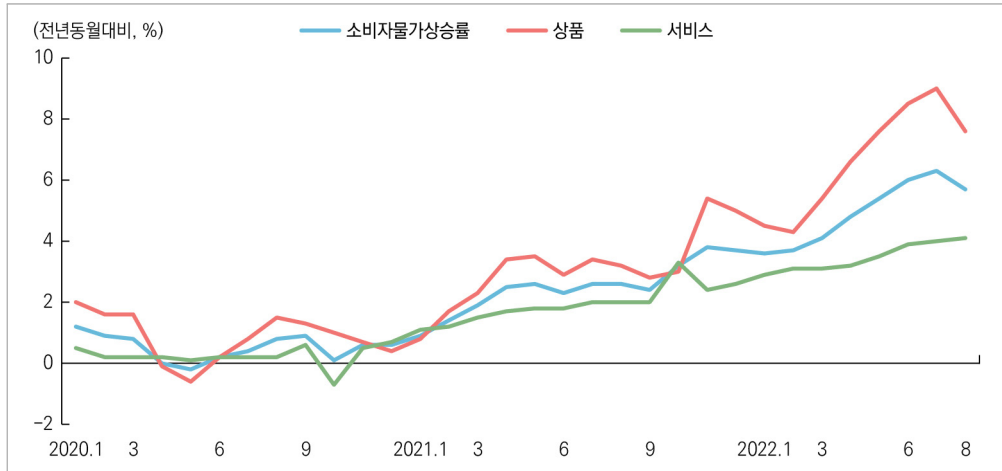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20	2021					2022	
		1/4	2/4	3/4	4/4	연간	1/4	2/4
소비자물가	0.5	1.4	2.5	2.5	3.5	2.5	3.8	5.4
상품	0.9	1.6	3.3	3.1	4.4	3.1	4.7	7.6
서비스	0.3	0.8	1.2	1.5	1.9	2.0	2.1	2.0

자료: 통계청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그림 11-60]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2022년 하반기 중 5.7% 상승하면서 2022년 연간으로는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방요인으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소비수요 확대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세 지속,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상승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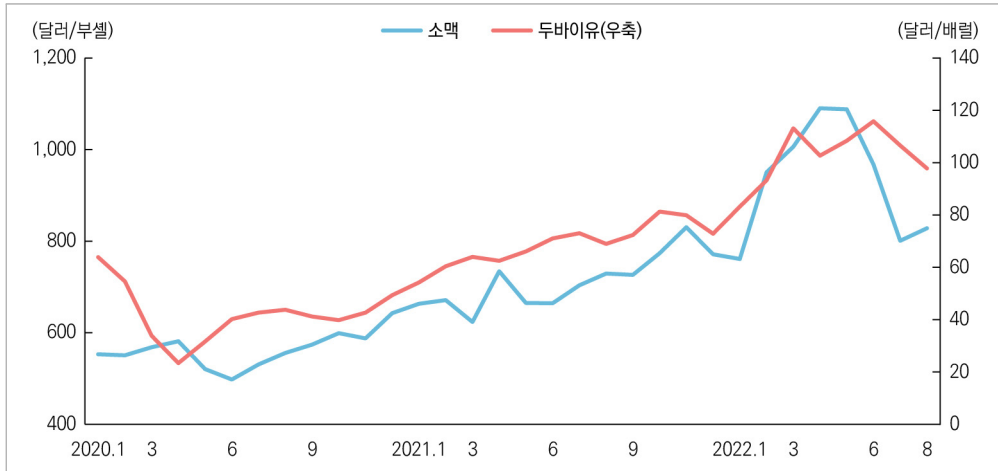
하반기 상품물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유가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상반기와 비교하면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곡물가격 역시 해상 운송망 정상화 등으로 하반기 들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시차 효과로 인해 국제원자재가격 요인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20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26] 소비자물가상승률 품목별 기여도 추이

	(전년동월대비, %p)							
	2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상품	2.02	2.52	3.09	3.55	3.98	4.22	3.56	
농축수산물	0.14	0.04	0.17	0.37	0.42	0.62	0.63	
석유류	0.79	1.32	1.48	1.50	1.74	1.59	0.90	
서비스	1.64	1.63	1.68	1.85	2.05	2.13	2.15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1]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⁴⁷⁾는 하반기 서비스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서비스 물가의 경우 수요요인 외에도 농축수산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스포츠 등 여가활동 정상화와 인력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경로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한미 기준금리차 역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II-27] 수입물가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입물가	20.0	21.3	25.9	23.0	20.8	17.3	11.9
식료품	16.4	20.0	19.3	17.4	15.5	13.8	10.3
에너지	57.2	60.2	76.0	72.6	71.9	63.1	48.9

자료: 한국은행

47)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 (2020년)-4.8→(2021년)3.7→(2022년 전망치)3.7

2023년 중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할 전망이다. 2023년 소비자물가의 하방 요인으로는 소비 회복세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2023년에는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1.3%p 하락한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원자재가격 안정화 등도 2023년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23년 중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2023년 중 세계경기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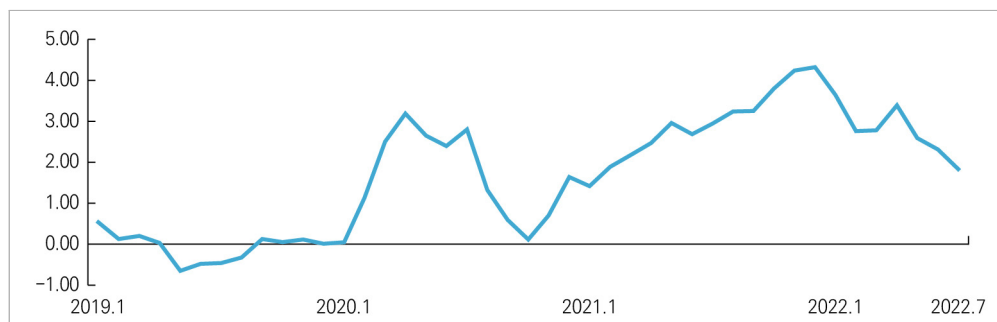
2023년 소비자물가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노동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중 명목임금상승률은 3.9%로 전망되면서 임금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표 II-28] 국제원자재가격 전망

	'22.3/4	'22.4/4	2022	'23.1/4	'23.2/4	2023
구리(달러/미터톤)	8,250	8,550	9,273	8,450	8,500	8,800
소맥(센트/부셸)	1,095	1,195	1,033	1,040	1,035	856
브랜트유(달러/배럴)	105.0	104.0	106.2	100.0	95.0	96.3

자료: Bloomberg

[그림 II-62]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 추이



자료: 뉴욕연방준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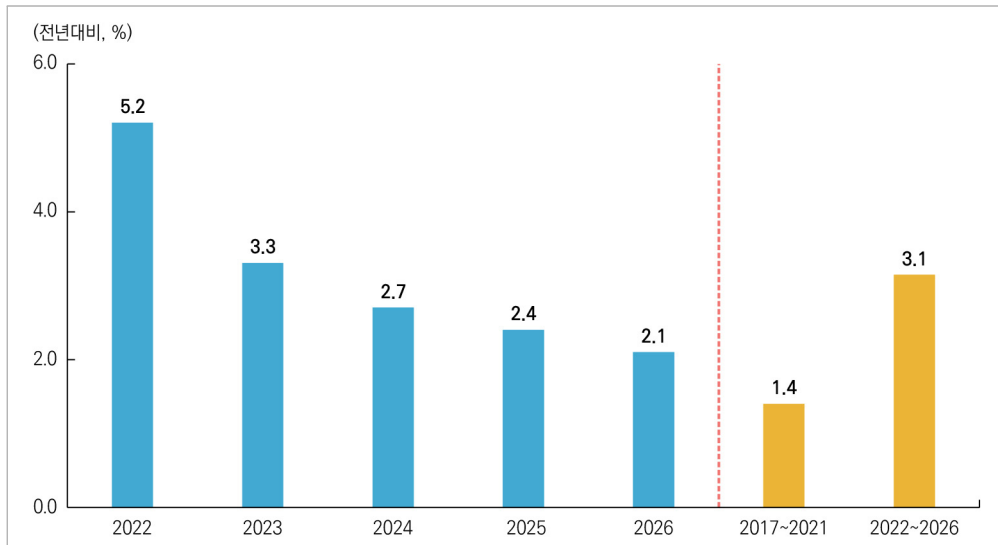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⁴⁸⁾

- 2022~2026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상승
 - 지난 5년(2017~2021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확대될 전망

(전년대비, 연평균, %)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2021	2022~2026
5.2	3.3	2.7	2.4	2.1	1.4	3.1

[그림 II-63]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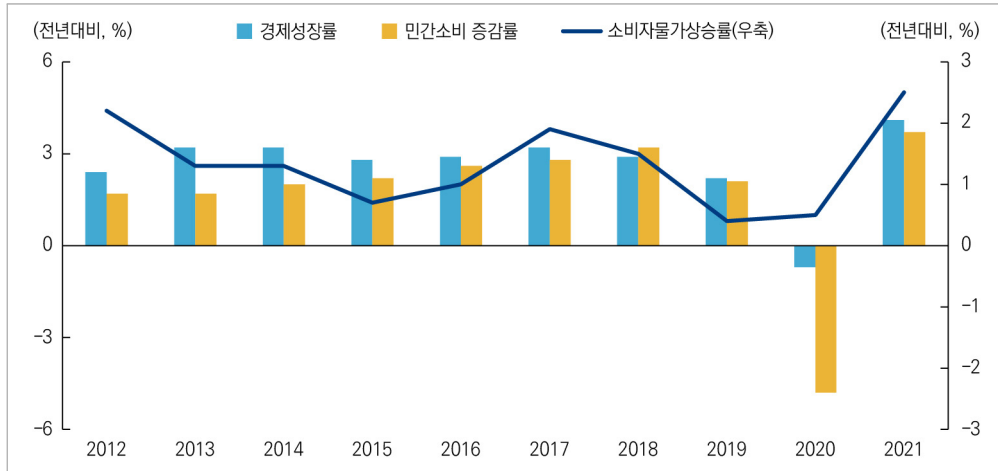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2026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상승하면서 지난 5년(2017~2021 연평균 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가상승 기대 확산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대 등은 중기 소비자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8) 이 전망은 소비자물가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요금 책정,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의 중기 상승추세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민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II-64]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원/달러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비 수요 감소⁴⁹⁾ 등은 중기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⁵⁰⁾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I-29] 온라인 쇼핑액 비중 추이

연도	온라인 쇼핑액(십억원)	총 소매판매액 대비 비중(%)
2017	94,186	21.4
2018	113,314	24.4
2019	136,601	28.9
2020	157,320	33.1
2021	187,078	36.1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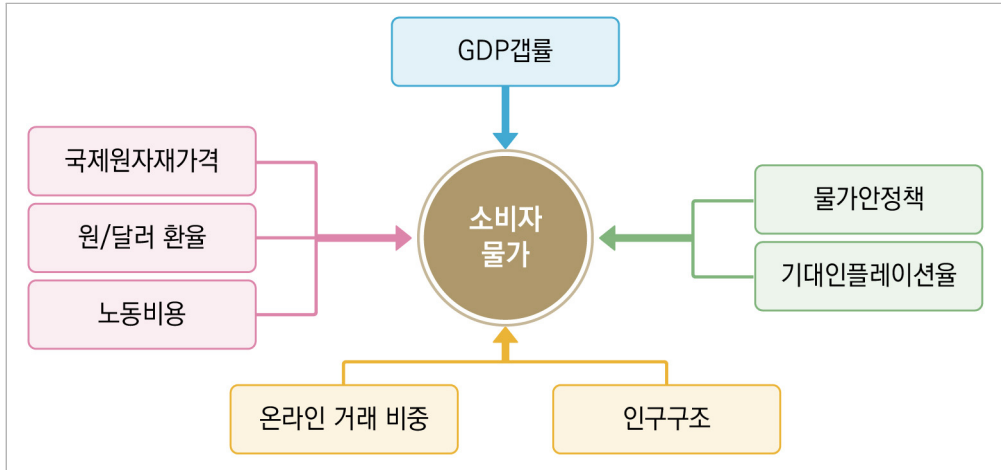
다음 [그림 II-65]은 중기 소비자물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GDP갭률 플러스 전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은

49)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

50)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품판매 비중이 1%p 상승시 당해연도 상품물가 상승률은 0.08%p~0.1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8.12.12.)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은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 고령화, 온라인 거래 비중 확대 등의 요인들도 소비자물가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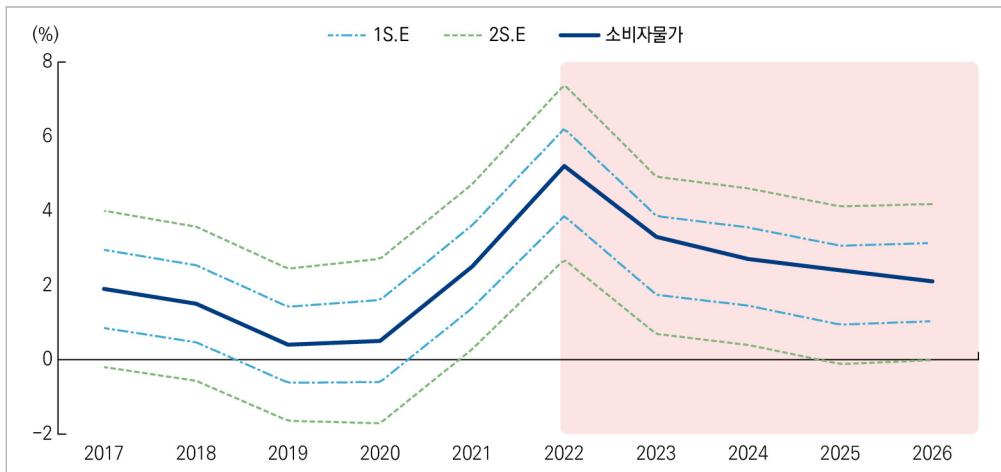
[그림 II-65] 소비자물가와 주요 결정 요인 간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 II-66]은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66] 중기 소비자물가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보도자료, 2022.8.1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2022.2.26.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1.9.
- _____,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8.
- _____, 「2022 대한민국 경제」, 2022
- _____, 「결산분석 시리즈 I -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2022.8.
- _____,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2022
- _____,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NABO Focus 제49호, 2022.8.17.
-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8.30
- _____,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2022.8.31.
- 김태경·박동준·최인협·이응원·장태운,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12.12.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22.1
- 오세진, “2021년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2.22.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 영향 점검”, 2022
- 박선우,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5호, 2022.1
- 박춘원,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2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2.6.
- 한국은행,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16-7호, 2016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보도자료, 2022.8.29.
- Bon, Ranko, and David Crosthwait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Thomas Telford, 2000.
- Goodhart, Charles and Manoj Pradhan,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Palgrave Macmillan, 202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7.
- Kuznets, Simon.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 Long-term trends in capital formation propor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9.4, Part 2 (1961): 1-124.
-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2.9.
-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2022.8.
- World Bank,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EFI Policy Note 4, 2022.9.
- _____, “Global Commodity Market Outlook,” 2022.4.
- _____, “Commodity Prices” 2022.9.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지출 부문 -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I)

발간일	2022년 10월 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3780)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ISBN 979-11-6799-081-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5-001979-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